□ 논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한덕골*

김 학 렬**

서론

1. 김대건(1821-1846) 신부의 가문
   1.1. 김대건 신부의 가문
   1.2.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
   1.3. 김대건 신부의 조부 김택현(1766-1830)
   1.4. 족보와 여러 사료
   1.5. 김대건 신부의 아버지 金濟俊(김제준)
   1.6. 신앙의 영향
   1.7. 김진후의 셋째 아들 金漢鉉(김한현)
   1.8. 넷째인 僖鉉(희현)과 그 부인
   1.9. 金運祚(김운조)의 동생 金貴祚(김귀조)와 그 아들 金寬鉉(김관현)
   1.10. 김해 김씨 가문의 이주 경로
2. 족보로 본 김대건의 가족 관계
3. 김대건 신부의 어린 시절
4. 김대건 부제의 육로 탐색과 귀국
5. 김대건 신부의 활동
   5.1. 상해로 항해
   5.2. 서품과 귀국
   5.3. 서해(백령도) 입국로 개척과 순교

결론

* 이 논문은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투고일 : 2020.05.11., 심사일 : 2020.05.20., 게재확정일 : 2020.06.05., 게재일 : 2020.06.29.

** 신부, 수원교구 원로사제, 용인대리구장 역임 및 천진암 성지 전담.

서론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정기총회에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2020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27일까지를 한국 천주교회 희년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정작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에 관해 쓴 이제까지의 글을 읽어보면, 많은 오류가 섞여 있어, 독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읽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김대건 신부와 그 가족들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 족보에 기록된 보명과 자, 아명과 초명 등이 일관성 없이 서술되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시대에 쓴 김구정 선생의 『성웅 김대건전』(1961)이라는 글을, 디지털 시대에 와서도 교회사학자들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생의 이른바 소설식으로 기술한 오류를 반복한 나머지, 가톨릭 대사전의 김대건 항목에서도 오류가 그대로 답습되었다.[1] 근거 자료를 제대로 찾아내어 분석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김구정 선생의 글 가운데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꾸밈(Fiction)인지를 구별해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들의 이와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김대건 신부와 그 집안에 관한 근거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고 종합 분석함으로써, 근거 없이 기술된 속설을 이 글에서 새롭게 바로잡고자 한다. 복잡한 족보를 큰 종이 한 장에 그려놓고, 보명, 아명, 초명, 자, 호, 세례명, 출생과 사망년도 등을 표기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자 한다. 사실이 왜곡된 내용에 대하여서는 여기서 진실을 밝혀 정리하나, 역관 유진길(奧斯定) 성인이 1830년 10월에 제시한 육로입국방법의 활용과 마카오 유학 시기를 포함하는 '김대건 년보' 등에 대해서는 별도

1) 참조: 김구정, 『성웅 김대건전』, 경향잡지사, 1961, 1163.

의 글로 정리할 계획이다. 논문의 제목처럼, 김대건 신부의 가문과 한 덕골 생활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유학 시기의 자세한 상황, 순교와 이장 부분, 은이 성지에 관련된 내용은 기존의 연구된 글들로 대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엄밀한 실증적인 고증을 통하여, 위에서 이미 지적한 왜곡된 역사적 사실들을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하성래 교수의 2004년 논문[2]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의 글이었다. 따라서 독자적 및 독립적으로 수행된 본 논문의 연구 결과, 하성래의 논문에서 제시된 몇 가지 유의미한 의문점들과 그 답변들과 관련하여, (i) 일부 미진한 기술들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강하였고, (ii) 일부 추정/결론들의 경우에는 교회사학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운 새로운 결론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특히 (iii) 1845년 여름 석 달 동안 김대건 부제/신부와 11명 평신도들의 중국 상해 지역 방문에 대한 더 자세한 기술을 담은 유관 사료들 등, 다수의 유관 사료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의미한 관계들을 찾아내어, 시계열(時系列)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摘示)함으로써, 이미 입증된 교회사학적 사실들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김대건 신부의 생전 활동 반경의 폭을 체계적 및 종합적으로 확장하는 등, 현재까지 알려진 성 김대건 신부 일대기의 핵심 내용들을 보강하고자 하였다.

제한된 지면 관계로, 본 논문에서는 근거 자료를 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각주로 처리하는 대신, 제시된 근거 자료 원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를 달아놓았으니,(『보감』, 『경향잡지』, 서한 원문 등) 수고하여 찾아서 참고하기 바란다.

---

2) 하성래, “성 김대건 신부와 굴암 및 은이”, 『교회사 연구』, 제23집, 2004.

1. 김대건(1821-1846) 신부의 가문

1.1. 김대건 신부의 가문

김대건(1821-1846) 신부의 가문은 金首露王(김수로왕)을 시조로 하는 京派(경파)(51대 金牧卿)에 속하며, 57대 安敬公派(안경공파)(金永貞)과 僉正공파(첨정)(59대 金從壽 字 仁仲), 牙山(아산)공파(60대 金希賢)에 속하는 집안이었다. 수로왕의 65세손이 曦瑞(희서)이며, 그 큰아들이 運祚(운조)이고 작은 아들이 貴祚(귀조)였다. 그러므로 운조의 증손자인 芝植(지식)(즉 김대건)은 69세孫(손)이 된다.[3] 김대건 신부의 본관은 金海(김해),[4] 세례명은 안드레아, 初名(兒名)(초명 아명)은 再福(재복),[5] 譜名(보명)은 芝植(지식), 충청도(=公忠道)(공충도) 면천 솔뫼 출신(=誕生)(탄생)이며, 아버지는 金濟俊(김제준)(보명 金濟麟(김제린))이며, 어머니는 고(長興)(장흥) 우르술라였다.

1) 1846년 (병오)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6]

김대건 안드레아는 1821년 8월에 충청도에서 태어났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의 가문은 조선이 아직 여러 소국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조선의 남부를 다스리던 어느 옛 왕가의 후예라고 한다. 이와같

---

3) 참조: 김판술(요셉, 양화진 총회장 1967), “성인 김대건 안드레아의 가렸던 가보를 벗긴다.”, 『천진암성지 자료집』 96, 2003년, 191 이하; 59대 김종수에 대한 명종실록 21년(1566)9.29.과 1522년 진사 급제; 志園(지원) 金九鼎(김구정) 著 , 聖雄(성웅) 金大建(김대건) 傳, 1961년 2월 가톨릭青年社(청년사) 刊 (發行所(간발행소) 京鄉雜誌社(경향잡지사)); 김구정, 『한국순교사화』 제4권, 監修(감수) 吳基先(오기선) 神父(신부)(敎會史學者(교회사학자)), 가톨릭출판사, 1976(이하 『순교사화』 제4권로 표기).

4) 한국교회사연구소, “김대건 신부의 10, 11, 12, 16번째 서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이하 『자료집』 제1-3집으로 표기) Andreas Kim hai Kim, Kim-ai, Kim-ay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5) 참조: 『순교사화』 제4권, 22.

6) 수원교회사연구소, “1846년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 『페레올 주교 서한』, 수원교구 역사총서 3, 천주교수원교구, 2012, 905(이하 『역사총서』 제3권으로 표기).

이 저명한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은 조선에서 특별한 존경을 받지 않는다. 현 왕조는 존속한 지 400년이 안 되었는데, 그 가문의 여러 사람이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요, 심지어 노비가 된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왕족에 속한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김대건 신부의 가문은 그 후손들이 볼 때에 명문이 되었는데, 교회를 위하여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가문이기 때문이다.

김 안드레아는 어렸을 때부터 신심교육을 받았다. (1836년에) 조선에 입국한 모방 신부는 김 안드레아가 타고난 총명함을 지닌 소년임을 알아차리고 그를 선발하여, 1836년 말에 다른 두 소년과 함께 라틴어를 배우게 하려고 마카오로 보냈다.

2) 『기해·병오 박해 순교자 증언록』, 81회차, 김 프란치스코 밀사의 증언[7)]

김 안드레아는 본래 충청도 내포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열심수계하고 총명하였으므로 병신 1836년에, 모방 신부께서 조선에 입국하시어 즉시 신학생으로 뽑아, 유방제 신부께서 중국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함께 보내어 신품공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79차/ 34 김이냐시오 / 11조목 -김 이냐시오 신명이는 본래 내포 사람으로서, 수계하기를 원하여 산중에 드러가 룡인서 살 때 죄인이 여러 번 보았삽고, 사람됨이 충직하고 여력이 과인하여 농사를 업으로 삼고, 열심수계하여 자기 집에 공소를 꾸미어-

---

7) 김대건 신학생을 1842년 11월에 만났고, 1845년에 김 부제를 입국시킨 밀사. 임신1812년생으로 경상도 청하 출신, 20세 때 심모니카와 혼인하고, 23세 때(1835) 유방제 신부에게 영세한 뒤 서울과 시골로 이주하여 살았다고 한다.(75회차, 1884.05.10. 증언) 참조: 70차 오 바실리오의 증언과 96차 이베드로의 증언. 치명일기 752에 있는(배티 출신) 청주의 순교자 김 라우렌시오 성환(1789-1866.10.23.)이 그의 부친이고, 동생은 벨라도일 것이다.

1.2.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 金運祚(字 震厚)는 대대로 이어오는 兩班으로서, 본래 先代가 강릉 지방에서 살다가, 충남 예산군 신암면 桂村里(@여사울성지, 신종리 인근 5리)로 이주하여 살았으며, 운조 대에 이르러 여기서 30리 내외의 당진군 우강면 松山里(솔뫼)로 거쳐를 옮긴 집안이었다.[8] 그의 손자가 되는 김제준도 자신을 양반 신분이라 밝히고 있고,[9] 이에 김대건 신부도 그의 복사인 이의창 레오의 권고대로,[10] 당시 양반으로서 마땅히 취할만한 행동을 실행하고 있다.

金運祚(字 震厚, 비오, ~~1745~~/1738[11]-1814.10.20. 해미옥 순교)는 그의 맏아들 金淙鉉(字 宗璉)의 권고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12] 솔뫼 땅에 거주하는 지방 유지였던 김운조(진후)는 내포의 사도라 일컬어지던 이존창(1759-1801, 운조가 살던 계촌리의 옆 동네가 여사울)과[13] 일찍부터 면식이 있었고, 후에는 둘째 아들 金澤鉉이 이존창의 딸 멜라니아와 혼인함

8) 참조: 이창훈 기자의 기사, 「가톨릭평화신문」, 1996.08.11.일자, 9; 이원순, "김대건 가문의 신앙 내력과 순교 전통", 『교회사 연구』 제12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76, 각주 7 (이하 『연구 12집』이라 표기).

9) 참조: 『일성록』 1839.08.07. 죄인 김제준의 진술. 59대 金從壽와 1864년 면천 출신 金秉植의 급제 등에 대하여, 아래 주소의 인물종합정보 참조: http://people.aks.ac.kr/index.aks.

10) 한국교회사연구소, "김대건의 1846.08.26. 20번째 (옥중)서한", 『자료집』 제1집, 365에, "저의 하인 베랑(베난시오가 아니라 레오였다는 사실을, 앞으로 <치명일기 354. 니 량 의셩(=李 良 宜敞)>를 다루면서 자세히 밝힐 것이다.), -저는 지체 높은 가문의 양반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레오는 이런 경우에 취해야 할 행동 기준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달레 원문 2권 310에서 Véran으로 표기하였음. 참조: "김대건의 20번째 옥중서한", 369와 『성 다블뤼 주교의 생애』, 279.

11)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중, 46(이하, 『달레 중』으로 표기)에, 비오라는 세례명으로 1788경에 입교하였다. 김진후 비오가 1814년 해미옥에서 옥사치명할 때, 그의 나이 76세였다고 한다. 참조: 이원순, 『연구 12집』, 73-81.

12) 이원순, "김대건 가문의 신앙 내력과 순교 전통", 『연구 12집』, 83, 각주 24; 「가톨릭신문」, 1996.08.16일자.

13) 참조: 천진암성지소장, 권철신簡札 1776.05.24.; 하성래, 『윤유일.정은 평전』, 성.황석두루가서원, 1988, 28.

으로써, 사돈관계를 이룰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였다.

또 하성래 교수가 밝힌 바에 의하면, 김대건 신부 집안은 한국 천주교회 초창기 이존창(李存昌)의 전교로 그의 큰 할아버지 김종현 형제가 1785년 을사추조적발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으로 순교한 김범우에게서 교리를 배운 것이라 할 수 있다.[14]

그러므로 김운조는 내포의 사도였던 이존창을 통하여 천주교를 알았으나, 당시 하급 관리직에 있었으므로, 시초에는 천주 신앙을 외면하고 살았다. 그러던 중에 맏아들 김종현을 시작으로 그 아들들이 모두 신앙을 수용하고 열심히 봉행하자, 그 역시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비오라는 세례명으로 영세 입교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50세가 넘었다. 신앙을 간직한 이후, 신해 1791년 박해부터[15] 시작된 여러 차례의 박해로, 많은 고초를 겪은 끝에 1814년 10월 20일(음력)에 76세로 옥사하여, 이 가문에서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16]

김운조(진후) 비오에게는 1명의 동생인 金貴祚(字 善厚, 1745-1784)와 4명의 아들이 있었다.[17] 운조의 1子가 淙鉉(字 希顔. 宗璉, 甲申1764-~~甲寅1794~~/1824),[18] 2子 澤鉉(자 宗元, 1766-1830), 3子 漢鉉(자 宗漢 계원, 안드

14) 참조: 하성래, "성 김대건 신부와 굴암 및 은이", 『교회사 연구』, 제23집, 169. 《邪學懲義》辛酉 3月 19日. "一. 明禮洞居名不知金主簿 以敎邪學德山居金宗連兄弟." '金淙鉉, 宗連, 宗漣'은 동일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필자가 파악한 족보를 보면 형제들의 字가 宗漣, 宗元, 宗漢이다. 21세의 김종현과 19세의 김택현(宗元)이 1785년 명례방 집회에도 참석하였을 것이다.

15) 참조: 대한성교사기, 『보감』 1권 17호, 경향잡지, 1907, 136(이하 『보감』으로 표기하며, 보감 출처에 대하여서는 참조: http://zine.cbck.or.kr/newzine/view/ageview.asp.); 『순교사화』 제4권 4권, 12.

16) 참조: 『보감』 80호, 1908, 224; 이원순, 『연구 12집』, 86, 92; 차기진, 『연구 12집』, 101.

17) 참조: 이원순, 『연구 12집』, 74.

18) 이원순, 『연구 12집』, 83, 각주 25에서 재인용. 『일성록』 1814.06.19. "英陽罪人金宗漢則其兄宗璉 師事文謨 至受簇念珠 渠以乃兄之弟(필자번역: 영양(경북)의 죄인 김종한은 그의 형이 종연인데, (주)문모에게 사사하여 묵주를 받기까지 하였으며, 형제들 사이에 도랑 역할을 하였다.)". 宗璉은 淙鉉의 자로 추정된다. 金海金氏 (璿?)濬源世譜乙

레아, 1768-1816.12.19. 대구 관덕정 순교), 4子 僖鉉 (浠鉉 ?,[19] 자 秀元, 1785-1827) 이었다.
자 희현 희현 수원

1.3. 김대건 신부의 조부 김택현(1766-1830)

김대건 신부의 조부 김택현(1766-1830)은 丁亥(1827)박해 즈음에 家率을 이끌고 충청도 솔뫼를 떠나, 서울의 성밖 靑坡洞을 거쳐 용인 閑德洞(한덕골)에 정착하여, 1830년에 별세할 때까지 한덕동에서 살다가 이곳에 묻혔다. 이어서 김대건 신부의 季父 金濟哲(자 憲明, 1803-1835)도 한덕동에서 살다가 이곳 한덕동에 묻혔다.
정해 가솔 청파동 한덕동 계부 김제철 헌명

이곳으로 피난 와 처음에는 기거할 집이 없어, 마을 근처 성애골(현재는 골프장에 매몰) 골짜기에 들어가 생나무와 나무들 사이를 칡으로 얽어매고, 억새풀을 이어 덮고서 살았다는 눈물겨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20]

원래 한덕골은 윗마을 광파리골과 아랫마을 한덕골을 합쳐서 부르던 이름이며, 그중 교우촌은 윗마을 광파리골이었다. 김대건 신부의 조부 김택현과 숙부 김제철의 묘가 한덕동에 있다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 김대건 신부 가족의 한덕골 피난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박해를 피해 정착한 이곳 한덕골에는, 김대건 신부의 조부 김택

編二에서, 종현의 卒年을 甲寅이라 기록하였으나, 순교한 동생 한현=종한이 보낸 편지를 참고해보면 甲申의 誤記로 판단되며, 生卒년이 모두 같은 갑신년으로서 60년 回甲을 산 것이다.
편이 졸년 갑인 갑신 오기 생졸 회갑

19) 僖鉉이란 보명은 3명 형들의 이름에 모두 氵가 달린 것으로 보아, 浠鉉이었을 것이다.
희현

20) 참조: 김진용, “김대건 신부 가족 피난지에 관한 연구: 용인 閑德洞을 중심으로”, 『교회사의 역사』 218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치명일기』 63번, 김시몬(=진식?)이 한덕골 출신이었고,(415) 김 마리아는 용인 한덕골에서 양주 포교에게 잡혀 병인년에 순교하였다.(413) 김요한 윤오도 용인 굴암에서 잡혀 아내와 함께 양주에서 순교하였다. 참고로 같은 글, 433. 이희서는 양지 사기점과 양지 한터에서 살았다. 한터골은 발견되지 않는다.

현 일가족 이외에도 최양업 신부의 仲伯父(=崔榮謙) 일가족이 피신하여 살았다.[21] 崔京煥(보명 榮訥, 1805-1839, 프란치스코) 성인의 작은형인 최영겸은 1832년 무렵에, 이곳 광파리골로 이주해 왔으며, 1839년 박해 이후에는 고아가 된 최양업(1821-1861, 토마스) 신부의 넷째 아우 崔信鼎(델레신포로)이 이곳 광파리골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최양업 신부도 귀국한 이후, 한덕골로 중백부 댁을 방문하여 이들과 눈물겨운 상봉을 하였다.

이렇게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는 1849년 4월 15일에 중국 상해에서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인 1850년 1월에 육로로 귀국하여 이곳 한덕골에 와서, 중백부 최영겸과 어린 동생들을 눈물로 상봉하였다. 최 신부는 이후에도 가끔 이곳에 들러 성사를 주곤 하였다.[22]

이렇게 한덕골로 이주한 김택현과 이 멜라니아 부부의 가족들, 더불어 최양업 신부의 중백부 가족등을 합하면, 10명 이상이 이곳 한덕골에서 살았다. 그 당시 이 지역을 총괄하는 굴암 공소의 신자 수가 130-140명이었다고 모방 신부는 편지에서 밝히고 있다. 이렇게 심산궁곡(深山窮谷)으로 피하여 살아갔어야 하는 당시 교우들의 어려운 처지를, 모방 신부와 최양업 신부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1) 모방 신부의 1836.12.09일자 서한[23]

교우들은 늘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줄곧 숨어 살았습니다. 외교인들의 미신과 우상숭배에 한몫 끼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은

21) 참조: 배티 사적지(편), 『최양업 신부의 서한』, 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제1집, 청주교구, 1996, 157(이하 『최양업 신부의 자료집』 제1집으로 표기). 최경환의 모친과 25명 가족 전부가 서울로 이사하였었다.

22) 참조: 최상종 빈첸시오가 쓴 최양업(토마스) 신부의 이력서; “페레올 주교의 40번(조선 1850.11.17.) 서한”, 『역사총서』 제3권, 581.

23) 『달레 중』, 337.

산골로 피해 들어가고, 아무도 일찍이 살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외교인들이 눈치를 채면, 위험을 덜 당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곳으로 피해갑니다. 이렇게 너무 자주 옮겨 다닌 까닭으로, 많은 교우들이 거지생활보다도 더 심한 곤궁에 빠졌습니다. 영하 10-12도나 되는 추위에 거의 벌거벗은 어린애들이 새파랗게 얼어서, 미신자들 집 문전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수풀에서 뜯어온 풀뿌리와 맹물, 이것이 어떤 시기(= 춘궁기, 보릿고개)에 있어서는 우리 교우들 중, 많은 사람들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2) 최양업 신부의 7번째 서한[24]

저들은 포악한 모진 학정 아래 온갖 종류의 가렴주구(苛斂誅求)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험준한 산 속으로 들어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초라한 움막을 짓고, 2년이나 3년 동안 만이라도 마음 놓고 편안히 살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거의 모두 다 외교인들이 경작할 수 없는 험악한 산 속에서 외교인들과 아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거의 다 교리에도 밝고 천주교 법규도 열심으로 잘 지키고 삽니다. 그러나 평야지대인 고향에서 친척들과 외교인들 사이에 섞여 사는 신자들은 대체로 교리에 무식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한 신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육신과 세속의 모든 관계를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 담배와 조를 심으며 살아갑니다.

24) 『최양업 신부의 자료집』 제1집, 81, 113.

1.4. 족보와 여러 사료

최석우 신부는『교회와 역사』, 제184호, 1990년 9월호 16쪽에서, “김대건의 조부인 김택현도 1827년 정해박해를 피해,[25] 솔뫼에서 용인으로 피신하여 골배마실(寒德洞)에 정착했는데, 그때 김대건의 나이가 7세였다고 한다.”며, 골배마실과 한덕동을 마치 한 마을인 것처럼 기술하여, 후학들에게 영향을 끼쳤다.[26] 現場踏査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오류의 근저(根柢)에는 김구정(1898-1984) 선생의 저술이 있었다.

1) 김구정,『한국순교사화』제4권, 1976, 가톨릭 출판사, 9쪽에서

소년시대, - 難民村의 王孫, ‘때는 헌종 3년 丙申(1836)년 늦은 봄이었다. - 그 때 충청도 內浦지방 솔뫼(現 忠南 舒川郡 松山里)에서 여기로 피난 온 金海 金氏의 한 집안이 [골배마실](寒德洞) 동네에서 살게 되었다.

25) 하성래, 앞의 글, 171에서, 김대건의 조부 김택현이 고향 솔뫼를 떠났을 년도에 대해, 1791년 신해박해, 한현이 고향을 떠난 1798년, 아버지 김진후가 다시 체포되는 1805년, 김진후가 옥사한 1814년, 동생 한현이 순교하는 1815(실제 1816)년, 그리고 1827년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차남인 택현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굳이 고향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늦어도 1815년을 전후하여 고향 솔뫼를 떠났을 것으로 본다.(174). 그러나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175) 그러나 필자가 살펴본 바, 1) 종현의 집안을 위시하여, 4째 희현과 4촌 관현의 묘를 선산에 1830년대 이후에도 쓴 것으로 되어있다. 2) 살아있는 장자 김제봉(1790-1821)을 남겨두고, 다른 두 동생 가족들만 데리고 떠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솔뫼를 떠나는 해는 선산에 묘를 쓴 백부 김제봉의 사망년도 1821년에 이어, 3) 김대건이 서약서에서 모방 신부에게 솔뫼를 출신지로 밝히는 계기가 되는 탄생 년도, 즉 1821년 이후가 되어야 할 것이다.

26) 이원순, 성 김대건 안드레아, 1988 성 요셉출판사, p. 21.; 차기진은 교회사 연구 제12집 100-101에서, 김진용의 글을 인용하면서, [골배마실](寒德洞)을 더 연구해볼 문제라며 골배마실 이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서종태,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연구, <교회사학 5권, 2008년 12월>, 수원교회사연구소, 170 참조.

2) 『한국순교사화』 제4권의 전신, 『성웅 김대건전』(1961)

『경향잡지』 1961년 7월호 50쪽에 그 서평이 실려 있는데, 이는 志園 金九鼎 著, 聖雄 金大建 傳, 1961년 2월 가톨릭 靑年社 刊(發行所 京鄕雜誌社) 이었다. 이 책(聖雄) 22쪽에서, "그 때 충청도 內浦지방 솔뫼(現 忠南 沔川郡 松山里)에서 여기로 피난 온 金海 金氏의 한 집안이 [골배마실](寒德洞) 동네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내용은 바로 앞의 『성웅 김대건전』(1961)에서 본 바와 같은 것으로서, 『한국순교사화』 제4권, 9쪽(소년시대)에 글자 그대로 똑같이 기술되어 있다.

김구정 선생은 『성웅 김대건전』을 『한국순교사화』 제4권에 그대로 반복하여 실은 것이었고, 책 끝에는 부록으로, 김익진 선생이 번역한 황사영의 백서와 정하상의 상재상서를 실었다.

이 후, '[골배마실] (寒德洞)'의 기술 방법을 이원순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이원순은 "김대건 가문의 신앙 내력과 순교 전통"(『연구 12집』, 1997, 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의 글)에서 이를 그대로 답습하였고, 이후의 다른 연구자들의 역사 기술에서도, 역시 확인이나 검증 없이, '[골배마실](寒德洞)'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다만 최석우 신부가 교회사 『연구 12집』, 21쪽에서, "1960년에 간행된(=실은 1961년 2월 경향잡지사 발행) 김구정의 '성웅 김대건 전'이 내용면에서는 좀 풍부해 졌으나, 역사 소설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좀 문제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23쪽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건 신부 가족의 솔뫼로부터의 최초 피난지가 용인의 골배마실이 아니라, 용인의 한덕동이었다는 김진용씨의 연구는, 사적지(史蹟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히 언급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이후 하성래 교수의 "성 김대건 신부와 굴암 및 은이", 『교회사 연구』, 제23

집, 2004년 책자가 나왔다.

1.5. 김대건 신부의 아버지 金濟俊(김제준)

김대건 신부의 아버지 金濟俊(이냐시오, 보명 濟麟, 자 信明[27], 1795-1839)은 伯父인 金淙鉉으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고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28] 즉 김대건 가문 신앙의 개척적 선구자였던 김종현이 이존창의 전도로 먼저 신앙을 가진 이후, 친족들에게 전교함으로써 천주교 신앙을 갖게 한 것이다.[29]

그러므로 김제린(제준)은 김해 김씨 양반 가문 출신이었고, 당시의 신앙생활 관습에 따라 어려서 세례를 받는 등, 선조들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1) 기해 1839년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73위][30]

2) 『기해일기』 +김(=제준) 이냐시오 시명이. 김 신부의 부친이라[31]

3) 『일성록』 1839.08.07. 죄인 김제준의 진술

저는 용인에서 거주하였고, 본래 양반 신분인데, 농사일로 생활

27) 참조: 하성래, 앞의 글, 169. 여기서 김제봉의 사망 시기를 60년 후인 1881년(=92세)으로 보았다.

28) 참조: 『일성록』 1839.08.07. 죄인 김제준의 진술.

29) 하성래, 앞의 책 169에, 사학징의 내용을 근거로 김범우에게서 배웠다고 한다.

30) 참조: "기해 1839년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73위]", 『역사총서』 제3권, 809.

31) 참조: 1905 『기해일기』 활판본 54a-55; 『경향잡지』 1930년 1월, 33.

하였습니다.(以爲渠居生于龍仁 本有班名 農業資生) 저의 삼촌 숙부인 宗賢(淙鉉)이 천주교를 가르친 지가 비록 오래되었지만, 오랫동안 농업에 몰두하여 능히 열심히 익히지는 못했는데, 성직자가 서양에서 와서 정하상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과연 가서 나(모방) 신부를 만나보고 영세 받고 돌아왔습니다.(受其領洗而歸矣)[32] 나가(모방)가 남쪽 지방으로 내려갈 때, 지나가는 길에 저의 집(용인 한덕골)에 들어와 제 아들 재복을 보고는 제자로 데려가고자 했으므로 부득이 허락했습니다.[33]

4) 『추안급국안』 1839년 8월 13일, 죄인 김제준이 진술함(나이 50세)[34]

저는 본래 청파에 살았으며, 용인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저의 백부(김종현)가 일찍이 천주학을 익혔으므로, 저 또한 이를 배우다가 신유(1801)년에 나라에서 아주 엄하게 금하였으므로 다시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정하상이 저에게 권하여 다시 배우도록 하였으므로, -제가 가서 보니 과연 한 칸 방에 이른바 신부가 있었는데, 성은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5) 조선 3번째 신부들(정규하, 강도영, 강성삼)이 배운, 말레시아 페낭신학교의 1885년판 교회사 교과서, COMPENDIUM HISTORIAE ECCLESIASTICAE,

32) 병인치명사적 6권 45에 보면, 이량(의창)과 이 토마스(재의)도 이 당시 하루 만에 문답을 외워, 모방 로 신부에게 령세와 견진을 받았다.

33) 조선시대에는 용인현과 양지현이 따로 있었다. 김제준은 순교할 때까지 (용인)굴암 회장이었고, 유방제 신부도 1836년 사순절에 굴암을 방문하려 한다. 참조: 한국교회사연구소,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자료집』 제3집, 1997, 245;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3, 서학, 사교배척에 관한 변증설; 『경향잡지』 1930년 9월, 1930, 424, 복자 안드레아 김 신부 金大建.

34) 한국교회사연구소,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자료집』 제3집, 249.

PULO-PINANG 1885, SUPPLEMENTUM, 136.

> "이벽은 새 서적들을 아주 열심히 탐구하였고, 공적인 토론회를 통하여 이름난 학자들을 굴복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회개시켰다. 한편 이승훈 베드로는 이벽에게 세례자 요한이란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동시에 어떤 박사가 이벽으로부터 신앙에 인도되어 거룩한 샘에서 씻기움을 받았는데, 그는 방지거 사베리오란 이름을 받은 권일신이었다. 권일신은 미구에 자기 제자인 젊은 이단원(=이존창)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알로이시오란 세례명으로 불리게 하였다(1784). 3 명의 선각자인 베드로와 세례자 요한과 방지거 사베리오는 똑같은 열성으로 신앙의 진리를 자기 동향인들에게 전하는데 몰두하였다."

1.6. 신앙의 영향

이상의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가족들 가운데 김진후의 맏아들 김종현이 제일 먼저 이존창(=李端源, 類斯=루도비코=Louis=루수, 1752-1801)[35] 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초기부터(1785경) 명례동의 김범우에게 배워 신앙을 간직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총억을 따라 권철신의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강학에도 참석하였을 이존창은 권일신의 영향으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내포의 사도가 되었다. 이존창이 살았던 여사울은 김진후가 솔뫼로 이주하기 전에 살았던 계촌리의 이웃 동네이며, 솔뫼와도 30여리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

35) 聖年廣益 秋季 8編 25일, 聖王 類斯(=루이 9세)이다. 내포지방 여사울의 이존창은 원래 이기양 밑에서 공부하다가, "이존창이 1776년 13세의 이총억을 따라서 권철신의 문하에 들어왔다."(하성래, 『순교자 윤유일. 정은 평전』, 성황석두루가서원, 1988, 28) 이존창의 딸 멜라니아는 최양업 신부의 서한과 『달레 상』, 454 이하 등을 볼 때, 최양업 신부의 증언이 확실하므로, 김대건 신부의 조모는 바로 이존창의 딸 이 멜라니아이다.

김종현에 이어서 그 동생들도 입교하여 부친께 신앙을 권함으로써, 온 가족이 신앙을 갖게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김진후 비오는 1791년에 체포되었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체포와 풀려남, 유배와 해배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1805년에 다시 체포되어 해미옥에서 10년을 갇혀 지내다가, 1814년 12월 1일에 옥중 순교하였으니, 그의 나이 75세였다.[36]

1.7. 김진후의 셋째 아들 金漢鉉(김한현)

김진후의 셋째 아들인 金漢鉉(안드레아, 자宗漢 보감/季元?, 1768-1816. 12.19.)도 을해(1815)박해로 우련밭에서 잡혀, 대구 관덕정에서 1816년 12월에 순교하였다.[37]

그는 우련밭에서 17년 동안 숨어 살며 수도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한편, 전교활동에 종사하다가 을해 1815박해로 안동 포교에게 체포되었다.[38] 그 후 대구로 이송되어 약 20개월 간의 옥고를 겪은 끝에, 1816년 음력 11월 1일에 지도자로 지목된 김종한이 제일 먼저 칼을 받았고, 다른 교우 6명도 함께 참수치명하였다.[39]

옥중에서 형에게 보내는 편지 2통이 『달레 중』 75-80에 번역되어 있는데, 長兄 淙鉉의 사망년도를 족보에 기재된 대로 1794년으로 보게 되면, 그 편지의 수신인은 김대건 신부의 조부 김택현이 된다.[40]

---

36) 참조: 『달레 중』, 46. 124위 복자 중 68번.

37)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현 청기면 행화리). 보감에 안동 엿밧/울연밧. 79번/124위 복자.

38) 참조: 『달레 중』, 76의 둘째 편지; 『보감』 86호, 1908, 271; 『순교사화』 제4권, 25-37.

39) 참조: 『일성록』 1816년 6월 19일; 『달레 중』, 65-69, 74-82; 『보감』 1908, 84호, 253; 이원순, 『연구 12집』, 93.

40) 참조: 『보감』 86호, 1908, 270-271; 『순교사화』 제4권, 32-33.

그러나 둘째 편지에서, 1815년 초봄에 형수님이 사망하였다는 내용을 보면,[41] 수신인을 맏형 김종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맏형 김종현이 1815년 이후까지 생존한 것으로 족보가 수정되어야 하는데, 솔뫼 성지의 글에서는 1824년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둘째 편지 끝에서는 형에게서 받은 차입 물건과 편지에 감사하고 있다.

한편, 이 집안에서 김한현의 딸 김 데레사(1796-1840.01.09.)는[42] 金濟德(요왕, 公淑, 1813-1888)의[43] 누님으로서, 孫連旭 요셉(1793-1824)과 17세에 결혼하였으나(1813년경), 1817년에 남편 손연욱이 잡혀 해미에서 순교하자[44] 과부가 되어, 정정혜 엘리사벳과 함께 앵베르 범 주교를 도와 일하다가, 기해박해로 7개월간의 옥고를 치르며 6회의 신문을 당하고 笞杖 280대를 맞고, 1840년 1월 9일에 44세로 순교(교수치명)하였다.[45]

1.8. 넷째인 僖鉉(희현)과 그 부인

넷째인 僖鉉(자 秀元, 1785-1827)과 그 부인(綾城 具씨 父 仲默, 1784?-1842)의 묘가 先山下 合兆(=合窆)으로 되어 있고, 외아들 金濟恒 (루도비코=루수, 1814-1866)과 부인(창원 황씨 父 基仲, 1810?-1840)의 묘가 沔川 松山 泛雙兆로 되어 있어, 이 막내의 집안은 적어도 1840년까지 면천 송

41) 김해김씨안경공파 家乘譜全에, 配 晋州姜氏가 甲戌 1814년 4월 21일에 卒하였다.

42) 가승보전에, 子 濟信과 女 姓女가 마치 쌍둥이 남매인 듯이 같은 해에 탄생한 것으로 기록하였으나, 김 데레사 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기록일 것이다.

43) 시복재판기록, “75회차 김프란치스코의 증언”, 『기해·병오 박해 순교자 증언록』, 한국교회사연구소 자료 제24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시복재판록 2권 403).

44) 『달레 중』, 98에서, 손영욱 요셉이 1817년에 체포되어, 옥고 끝에 갑신(1824)년에 사망.

45) 103위 성인 중 57번. 참조: 『달레 중』, 524; 『보감』 180호, 1910, 94; 『기해일기』 117; 『경향잡지』 1930년 9월, 401, 복녀 김 데레사; 이원순, 『연구 12집』, 93.

산리(솔뫼)에 눌러 산 것으로 보인다.

그의 외아들 金濟恒(김제항)은 병인박해로 거주지 온양 배여동에서 체포되어, 공주 감영에서 순교하였다.[46] 이후 그 후손 金光植(김광식)(1830-1885)과 金顯俊(김현준)(1860-1943) 등의 묘는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先山에 썼다고 한다.

1.9. 金運祚(김운조)의 동생 金貴祚(김귀조)와 그 아들 金寬鉉(김관현)

金運祚(震厚)(김운조 진후)의 동생 金貴祚(善厚 1745-1784)(김귀조 선후)와 그 아들 金寬鉉(김관현)(1784-1833)등 가족의 묘가 上仝(=上同)(상동 상동)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김관현이 사망하는 1833년까지는 솔뫼에서 산 것으로 보인다.[47] 그의 손자 金濟敎(김제교)(1815-1873)는 여사울에서 살다가 병인박해의 여파로 순교하였고,[48] 증손자婦(景植의 부인 창녕 조씨, 1844-1886)(부 경식)도 전주에서 순교한 것으로 家乘譜全(가승보전)에 기록되어 있다.

1.10. 김해 김씨 가문의 이주 경로

김해 김씨 가문의 이주 경로는, 이들이 사망한 후에 쓴 무덤의 소재지를 통하여 유추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宗家에 해당하는

---

46) 참조: 이원순, 『연구 12집』, 85, 94(치명일기 535번); 『병인치명사적』 12권 1(『상교우서』 35호).

47) 『한국의 성지와 사적지』의 "당진 솔뫼 성지"의 글에서 김귀조의 후손들은 정읍 집안이라고 한다. 참조: http://www.paxkorea.kr/bbs/view.php?id=1001&category=3&no=389; 김판술, 『천진암성지 자료집』 96, 2003, 192.

48) 참조: 이원순, 『연구 12집』, 95, 각주 54.

김운조 -김종현- 김제광-김경식과 그 가족 등의 묘는 金敬植(1802- ?)의 부인 李春壽 女(1803-1864)의 묘까지 대대로 先山에 있다고 되어 있어, 金運祚(震厚)의 동생 金貴祚(善厚)의 집안과 함께, 1864년까지 대대로 고향을 지키며 솔뫼에서 산 것으로 보인다.[49]

이후 이 집안 宗孫인 金顯采(1825-1888)는 김대건 신부의 동생 金蘭植(1827-1873)과 함께 (김대건 신부의 순교 후?) 전북 정읍군 산내면 龜洞(사자동, 먹구니)으로 들어가 양봉을 경영하며 살았다고 한다. 김현채의 부인 진주 姜履夏女(1835-1900)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자 水流(전북 김제시 금산면)로 내려와 살다가, 그곳 수류에 무덤이 있다.[50]

김운조의 次子인 김택현(1766-1830)[51]과 그의 3자 金濟哲(1803-1835, 先妣 남원 梁씨까지?)의 묘는 용인 한덕동에 있으나, 김택현의 첫 부인 경주 金永泰女(1766-1791)의 묘는 온양 남하면 春開洞에 있고, 그녀의 소생인 長子 金濟鳳(1790-1821)의 묘가 면천 先山下에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김대건의 조부 김택현 가족들이 고향 솔뫼를 떠난 것은 맏아들 김제봉이 사망한 1821년 이후였고, 솔뫼를 떠나는 구체적 원인은 전라도 곡성에서 시작된 정해 1827년 박해 때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김대건 소년이 조부모를 따라 솔뫼를 떠나온 이후, 신학생으로 발탁되어 마카오로 유학 갈 때까지 산 곳은 양지 골배마실이 아니라 용인 한덕골이었고, 김제준 이냐시오도 잡혀서 순교할 때까지 한덕골에서 살며 굴암 공소[52]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

49) “당진 솔뫼 성지”의 글에서, 맏이 김종현의 후손들은 부안 집안이고, 김희현의 집안은 익산 집안이다. 참조: 앞의 사이트.

50) 참조: 김진소, 『신바람 사는 보람』,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155-157.

51) “당진 솔뫼 성지”의 글에서 김택현의 후손들은 대전/논산 집안이라고 한다. 참조: 앞의 사이트.

52) 참조: 이석원, 『1834-1836년 여항덕 신부의 조선 대목구 사목 활동』, 한국교회사연구소, 2019, 각주 44에서, 모방 신부가 1836년 4월 4일에 파리 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부에

그 근거가 되는 기해·병오 박해 증언록에 의하면, 혼배하여 양지 배매실에서 1838년부터 살았던 증언자 이 베드로는 김제준을 굴암회장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53] 또한 김대건 부제도 한덕골 마을에서 김제준이 살다 체포된 사실 대하여,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대한 보고서'에서, '그 후 배신자가 한덕골(=Hantecol)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많은 거짓말을 하여 젊은이를 오류로 꾀어냈습니다.' 고언급하고 있다.

당시 140명의 신자들이 살던 굴암 공소에 속한 인근 마을들로는 한덕골 이외에도, 장촌, 검은정(巨文亭),[54] 병목안 등이 있고, 후에 병인박해 때 순교자들이 살던 삼베울과 고초골도 인근 동네이다. 김대건 신부의 무덤이 있는 미리내는 이민식이 살던 검은쟁이(거문정)에서 작은 언덕 등성이를 넘는 이웃에 있어, 사실상 김대건 신부도 고향 땅에 묻힌 셈이 되는데, 당시 미리내는 양성현에 속하였다. 김대건 소년이 살던 한덕골 관련 자료들을 보면,

1) 김대건의 아홉 번째 서한(훈춘 탐사 보고서)[55]

주교님께서는 제가 [소팔가자를] 떠나기 전에, 제가 지나가게 될 지방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주교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즉 저 자신이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게 보낸 서한(부산교회사연구소 제102회 학술발표회); "모방 신부 서한 5", 최제구 신부 역, 『상교우서』 56호, 2017년 가을, 35-36. 모방 신부의 편지는 소순태의 2006번 글 참조: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006.htm.

53) 참조: "96차 이 베드로", 『기해·병오 박해 순교자 증언록』, 855; 이석원, 『교회사학』 15호, 수원교회사연구소, 2018, 254.

54) 참조: 한국교회사연구소,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자료집』 제3집, 253. "(1901년 5월 21일) 오후 5시 30분에, 검은정이 동네에서 사는 70세 노인 이(민식) 빈첸시오가 왔다."

55) 참조: 김대건 신부의 9번째 서한,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 연구소, 1996, 139.

물어보고, 어릴 적에 조선 서당에서 배운 기억들을 더듬기도 하며,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2) 조선순교사와 순교들에 관한 보고서. 서울 1845년 3-4월[56]

그 후 배신자가 한덕골(nomen Hantecol)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많은 거짓말을 하여, 젊은이[57]를 오류로 꾀어냈습니다.

3) 김대건 신부의 여섯 번째 진술(일성록 1846.5.30.)[58]

저는 본래 他國(타국)인이 아니고, 朝鮮(조선)의 龍仁(용인)(한덕골) 지방 태생(龍仁地胎生)입니다. 성은 김이고 이름은 再福(재복)입니다.[59] 저의 부친께서는 洋教(양교)(천주교)를 조금 이해하셨으며, 西洋(서양)에서 나온 羅(나)(모방) 신부께서 저를 제자로 삼으려고 하자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15세 때에, 서양인 劉哥(유가)(유방제 신부) 및 馬頭役馬(마두 역마)꾼 趙信喆(조신철)이 저와 果川(과천) 崔永煥(최영환)의 아들 良業(양업)

56) “조선 순교사와 보고서”,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 연구소, 1996, 217.

57) 한터골이 아니라 한덕골로 표기해야 한다. 용인시 양지면 대대리에 한터가 있고 또 김대건 신부가 방문한 태화산 자락에 터골이 있을 뿐, 한터골이란 지명은 인근에 없다. 여기서 젊은이는 김제준의 사위 곽가를 이른다. 참조: “7번째 서한”, 『자료집』 제1집, 103.

58) 한국교회사연구소,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자료집』 제3집, 1997, 86.

59) 하성래, “성 김대건 신부와 굴암 및 은이”, 179에서 “《일성록》에 ‘태생’이라고 기록된 것은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을 의미하지 결코 사는 곳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고 하며, 김대건 신부는 1821년 용인 땅 굴암에서 태어나, 신학생으로 선발되던 1836년까지 거기서 성장하였다.(184쪽)”고 한다. 그러나 역사학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 김대건이 잡힌 다음 첫 진술(『해서문첩록』)에서, 거짓으로 “본래 중국 광동성 오문현 사람으로, 성은 우이고 이름은 대건인데, 그(=오문) 현에서 자랐습니다.” 고 하였으나, 마지막 포도청 진술에서만 ‘용인지태생(龍仁地胎生)’이라 진술하였다. 그러나 김대건의 말을 직접 듣고 기록한 선교사들과 최양업 신부의 기록뿐만 아니라, 모든 증언자들이 모두 충청도를 탄생지로 지목하고 있으므로, 원칙에 따라 솔뫼 출신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용인지태생은 둘러대는 기지일 가능성이 크다. 『성 다블뤼 주교의 생애』, 270에, “그러는 동안 김 신부는 우리가 와 있다는 것과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수단을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며, 주교와 신부가 숨어있는 충청도보다는 용인으로 둘러대는 기지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서품을 받으러 상해까지 갔다 온 사실은 극비에 붙여, 정부에서도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

과 洪州 崔漢之의 아들 方濟를 데리고 柵門으로 가서 中國으로 들여
홍주 최한지 방제 책문 중국
보냈습니다. 최방제는 病死하였고, 저는 廣東 吳門에 있는 河哥 집으
병사 광동 오문 하가
로 가서, 景敎[60]를 學習하였습니다.
경교 학습

4) 『제6차 기해박해 180주년(2019)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19, 수원교구[61]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유다스와 같은 배신자들이 [조선에도] 있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 사는, 어떤 양반의 소실에서 났기에 하급양반(=庶子)이 되는 김(여상) 요한이라는 배신자가 있고, 그리고 충청도 공주 '부사산'에서 살고 어쩌면 그곳에서 태어난 '곽'씨(김제준의 사위 곽가)라는 배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 25세의 청년인데, 그의 아버지는 공주 부사산이라는 교우촌[공소]의 곽 베드로 회장이었습니다. 김여상 요한과 곽 청년은 "조선에 천주교를 선교하는 유럽인 3명이 있다."고 관원들에게 알려주었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폭로하자, [헌종의 외조부인] 조(만영) 세도가와 이지연 우의정은 저희[3 선교사]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려, 김여상을 한 포졸 부대의 대장으로, 곽씨를 다른 포졸 부대의 대장으로 삼아 저희를 잡으러 보냈고, 그 외에 수백 명의 포졸도 보냈습니다.(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보낸 서한)

5) 『기해·병오 박해 순교자 증언록』, 68차 임 누시아(1884.04.21) 56세, 583쪽

---

60)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까지도 경교를 천주교로 이해하였다. 앵베르 주교도 심문에서, "조선에 입국한 까닭은 경교를 전하기 위함(出來朝鮮之由 則爲傳景敎)"이라고 대답한다. 경교에 관한 소순태의 문답 글을 참조: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46.htm.
출래조선지유 즉위전경교

61) 이석원, "모방. 샤스탕. 앵베르 주교의 서한에 나타난 조선대목구의 현황", 『제6차 기해박해 18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수원교구, 2019, 41.

태생은 수원 도마리, 부친은 임베드루 모친은 손이사벨, 나이는 기축1829생 오십육세, 어려서 영세하고 18세에 서스테파노와 혼배하여 양지 정쇠서 살다가,

8조목 - 75 김신부 때 첫 성사를 양지 터골서 받삽고, 병오년에 신부가 응이 상뜸이 모친댁에 계시다가, -모친이 부활첨례나 본 후까지 기다리기를 청하매 부활첨례보시고 일부첨례날에 떠나, - 편지 한 장을 써 보내셨더니 죄인도 보았삽고.

6) 『기해·병오 박해 순교자 증언록』, 96차 이 베드로, 855쪽

죄인의 나이는 갑술 1814년생 72세요 태중교우. - 20세에 중국 유(방제)신부전에 보례. - 무술 1838년에 노(모방)신부 때 윤발바라와 혼배하여 양지 배매실서 살더니,

김이냐시오는 본래 충청도 내포사람으로 용인 구람서 살 때 죄인이 보았삽고, 집안식구가 다 열심수계하며, 이냐시오는 자기 아들을 성교회에 바치고 회장소임을 맡아 교우들을 제성하며 훈회하더니, 기해 1839년에 유다스 김여상이가 이냐시오의 사회(=사위) 곽가를 잡아 제 장인을 대라 하니, 곽가가 이냐시오를 가르쳐 잡히었사오며, 서울로 올라와 중간에 마음이 잠간 변하였다가, 진심으로 설명하여 회두한 후에 치명 잘한 말만 들었사오며, -

김안드레아 탁덕은 본래 충청도 면천 사람이온데, 태중교우로 어려서부터 수계 독실.

7)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3, 서학, 사교배척에 관한 변증설[62]

62) 세실 함장의 편지와 관련하여서는, 참조: “최양업 신부의 8번째 서한”, 『최양업 신부의

“용인현 천곡(=천리)에 있는 김제준의 집으로 기해 1839년 3월에, 과천에 사는 최영환(=성 최경환)이 찾아와 편지를 전하였다.”고 한다. (邪學罪人譯官劉進言、丁夏祥。馬頭趙德喆。龍仁縣泉谷民金濟俊及其子再福。--今己亥三月。果川居崔永煥。來傳渠子書信。).

이상의 글을 종합하여 정리하여 보면, 성 김제준의 집안은 1827년경 솔뫼를 떠나 청파를 거쳐 한덕동으로 찾아들어, 부모(김택현, 이 멜라니아)와 동생 김제철 가족과 함께 가난하게 살면서도, 김제준이 공소(굴암)회장 일을 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모방 신부는 조선 입국 후 첫 부활절(1836.04.03.) 후에, 처음에는 서울에서, 그다음에는 경기도와 충청도(뒤에 보면 온양도 방문)에서 포교활동을 하였는데, 16개 내지 17개 교우촌을 방문하였다.[63] 이 지방 순회 때 모방 신부는 굴암 공소(한덕골)의 김대건 소년을 눈여겨보고 신학생으로 선발하게 되었고, 아마도 나 신부가 귀경하던 때인 7월 11일에(=장마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김제준의 집안이 양지 골배마실로 이사한 사실을 자료에서 전혀 찾을 수 없어, 김제준은 순교할 때까지 줄곧 한덕동에서 살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다가 기해박해(1839) 때 7월에, 사위 곽가를 앞세운 김여상에게 김제준이 한덕골에서 잡히어 순교하게 되었으므로, 김대건의 모친고 우르술라는 140여명이 살던 한덕골-굴암-장촌-검은쟁이 지역에서 더 이상 남부끄러워 살지 못하게 되자, 한덕골을 떠나 여러 곳을 떠돌게 되었다. 고 우르술라는 김 부제의 입국 때까지도 떠돌다가, 마침내 [양지출신 복사 이의창의 배려로?] 은이 인근의 골배마실(상뜸이)에 정

자료집』 제1집, 145.

63) 참조: 『달레 중』, 335, 각주 23(모방 신부가 파리 신학교 본부에 보낸 1836.12.09. 서한); 『보감』, 129호, 1990, 198.

착하게 되었을 것이다. 김대건 신부가 신품을 받고 귀국해서야 상뜸이(골배마실)로 어머니를 찾아뵙고, 용인지역과 태화산 자락(은다라니, 터골 등)의 신자들에게 성사를 준 것으로 증언록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지를 답사하고 확인하지 않은 김구정 선생과 후학들에 의하여, '골배마실 (한덕동)'이 김대건 소년의 생장지인 것처럼 이제까지 인식되어왔다. 더 나아가 김대건 소년이 골배마실에서 살던 중, 인근의 은이 공소에서 모방 신부에게 1836년 늦은 봄(6월)에 세례를 받고 신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허구적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이제까지 그대로 踏襲(답습)되어 왔다.

2. 족보로 본 김대건의 가족 관계[64]

1) 김해 김씨 성인공파 주요 족보

김귀조, 善厚											**김운조, 震 厚 비오+**
김관현, 仁佰		김희현, 秀元		**김한현, 宗漢 안드레아+**					配/ 경주김+ 이멜라니아	김택현, 宗元	김종현, 宗 璉
김제교, 俊明+		**김제항, 明集+**	**김제신 데레사 +손연욱**	김제덕, 公淑			김제철, 憲明		**김제린 (濟俊) 신명+**	김제봉, 順明	김제광, 君 集
김복식, 敬老	김경식, 敬敎/婦 **창녕조+?**	김광식		김운식, 君日	**김선식, 敬玉 방지거+**	김진식 敬道 **치명일기 시몬+?**	김의식, 敬聖	김난식, 敬五	**김지식, 大建, 再福, 안드레아+**	系 **김근식, 敬三 베드로+**	김경식, 敬 瑞
김현수	김현동	계/현준		김현규			김현수				김현채
김원배	김형배	김원배		김영배							김양배

64) 이원순, 『연구 12집』, 68과 김진소, 『신바람 사는 보람』, 154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참조: 김구정, 『순교사화』 제4권, 25.

2) 족보를 통한 확인 - 현재 5종의 족보가 있는데,

ㄱ. 金海金氏 (璿?)濬源世譜(全州本, 1933년 刊)
김 해 김 씨 선 준 원 세 보 전 주 본 간

ㄴ. 김해김씨 世譜(錦山본, 1917년 간)=속표지에 김해김씨 聯系 世譜
세 보 금 산 연 계 세 보

ㄷ. 김해김씨 世譜(裡里본?, 1862년 간)
세 보 이 리

ㄹ. 김해김씨 璿源大同世譜(1840년간)=다른 족보와 달리 활자본
선 원 대 동 세 보

ㅁ. 김해김씨 世系(宋起寅 신부 제공, 1930년생인 金鍾元까지 世系記錄)
세 계 송 기 인 김 종 원 세 계 기 록

3) 호남 교회사 연구소 소장인 김진소 신부는 1985년 6월에, “성 김대건 가문의 순교자는 10명이다.”[65]하며 정리하였다.

4) 김대건 신부의 조부 김택현은 먼저 경주 김씨(金永泰女, 1766-1791)와 결혼하여 맏아들 제봉을 낳았다. 그러나 1791년에 경주 김씨 김 영 태 녀
가 사망하자, 당시의 관례대로 3년 후에 이존창의 딸 멜라니아와 재혼하여(1794경), 김제린(제준)과 김제철을 낳았다.

이 멜라니아에 대하여서는, 최양업 신부의 서한 내용이 時空상 시 공
가장 가깝고 정확하므로, 이 멜라니아는 곧 이존창의 딸(=星山 李氏 李存昌女)이다. 이 멜라니아는 김대건 신부의 조부 김택현에게 재취 부인으로 출가한 것이다.[66]
성 산 이 씨 이 존 창 녀

65) 김진소, 『신바람 사는 보람』, 154; 치명일기 63. 김시몬을 살펴보아야 하고, 김희현의 손자 景植(경식)의 배필인 창녕 조씨(1844-1886?)가 전주에서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다(성인 공파보). 『순교사화』 제4권, 25에는, 가문의 순교자가 7명으로 정리되어 있다.

66) 참조: 『달레 상』, 324, 454; 김구정, 『순교사화』 제4권, 11.

5) 김택현의 長子(장자)인 김제봉(濟鳳(제봉), 자 順明(순명), 1790-辛巳(신사)1821)이 경술(1790)년생으로 적혀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初娶(초취)의 경주 김씨는 아들 제봉을 낳은 후 아마도 産後不調(산후부조)로 1791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김택현은 김씨 부인 사망 후, 을묘(1795)년에 태어난 둘째 아들 제린(제준, 김대건父(부))과 계해(1803)년에 셋째 아들 제철을 얻은 것으로 세보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최양업 신부의 서한대로 이 멜라니아는 김택현에게 재취로 시집을 갔고, 이후 멜라니아는 두 아들 제린과 제철을 낳았다.

6) 김대건 신부의 부친 김제린(제준)의 세례명은 이냐시오로서,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던 해인 1795년에 태어났다.[67] 그는 伯父(백부)(큰아버지) 김종현의 영향을 받아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68] 즉 가문의 신앙 개척자였던 백부의 가족 전도에 따라서, 김제준의 아버지 김택현도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더구나 生母(생모)인 이 멜라니아로부터 신앙생활 교육을 받았을 김제준은 당연히 유아세례를 받는 등,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천주교 신앙교육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제준은 어린 시절 솔뫼에서, 조부인 운조가 체포되었다가 석방되는 일이 거듭되는 가운데 성장하였다. 조부는 10년의 옥고 끝에 가문에서 첫 순교자가 되었고, 이후 가세는 더욱 몰락하게 되었다. 더구나 정해 1827 박해를 당하여 고향 솔뫼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여건에 놓이게 되자, 이미 年老(연로)한 김택현(62세)과 제린(33세), 제철(24세)의 3父子 가족은 솔뫼를 떠나, 신앙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터를 물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울 성밖 청파동에 몸을 의지한 적도 있

67) 『달레 중』, 467에 따르면, 김제준이 참수치명 할 당시 나이가 44세였다.

68) 참조: 『일성록』 순조 을해 1815년 6월 19일; 이원순, 『연구 12집』, 83.

으나, 결국에는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死角地帶(사각지대)를 찾아, 삼각 꼭지점 지역(용인현-양지현-양성현)이 되는 두메산골 한덕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한덕골에서의 곤궁한 생활 가운데, 이주한 지 얼마 안 된 1830년에 부친 택현이 별세하였고(65세), 이어서 1835년에는 동생 제철마저 사망하여(33세), 모두 한덕동에 묻히게 되었다.[69] 김택현을 순교자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 죽음은 선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70]

7) 김제준이 신유1801년 박해 때문에 신앙을 배우지 않았다고 진술하나,(『추안급국안』 1839년 8월 13일) 이는 솔뫼에 남은 친족들까지 연결되는 많은 교우들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한 거짓 변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 택현과 함께 신앙생활의 안전지대를 찾아 서울 청파를 거쳐 용인 한덕골로 찾아든 결단력 자체야말로, 더 확고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용감한 신앙행위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71] 또한 정하상의 권고로 다시 신앙을 배우게 되었다는 진술 역시, 김제준이 박해로 청파나 한덕골로 피난한 1827년 즈음에, 정하상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72]

---

69) 참조: 김진용, "김대건 신부 가족 피난지에 관한 연구: 용인 閑德洞을 중심으로", 부평2동성당; 김구정, 『순교사화』 제4권, 13. "[은이] 가까운 [곰배마실]에 초가 몇 간을." 참조: 이원순, 『연구 12집』, 87 이하. 여기서 "제린은 보다 생활 조건이 나은 골배마실(남곡리 소재)로 남은 식솔을 이끌고 옮겨가게 되었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정하상의 인도로 1815-1816년 경에 김제준이 다시 신앙을 봉행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추정일 뿐이다. 이 글에서, "청주-대전에 보내"를 "天主(천주) 대전에 바쳐"로 수정해야 한다.

70) 참조: 이원순, 『연구 12집』, 84; 조성희(편), 『용인천주교회사』, 오기선 신부 교열, 용인천주교회사편찬위원회, 99.

71) 참조: 79위 시복조사서; 김진용, "김대건 신부 가족 피난지에 관한 연구: 용인 閑德洞을 중심으로"; 이원순, 『연구 12집』, 84, 91. 차기진, 『연구 12집』, 102, 각주 10에서도, 1816년경(=솔뫼에서?)에 김제준이 정하상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였다는 근거 없는 추론을 하고 있다.

72) 앞의 1-5항에서, 『추안급국안』 1839년 8월 13일자 진술 참조.

여기서 언급된 바, 김제준이 모방 신부에게 받았다는 영세라는 표현 역시, 이 당시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補禮(보례)로 보아야 마땅하다.[73] 보례라는 용어까지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려는 김제준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김제준은 이곳 한덕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고, 굴암(증언록에선 구람)[74] 회장을 맡을 만큼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맏아들 김 지식(대건)을 신학생으로 교회에 봉헌할 수 있었다.

3. 김대건 신부의 어린 시절

김대건 신부의 譜名(보명)은 芝植(지식)(1821.8.21.[75]-1846.9.16.), 兒名(아명)은 再福(재복)(우리말로는 "또복이"라고 불렸을 것)이었다. 이런 이름이 생긴 데는, 부친 제린과 모친 고 우르술라 사이에서 태어난, 첫 복덩이란 뜻의 "初福(초복)"이었을 형에 이어, 또다시 얻은 아들이 재복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족보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김대건 신부에게는 형이 있었

73) 『병인치명사적』 6권 45를 보면, 이량(=이의창)의 경우 어려서부터 신앙을 알았으나, 매부 니 도마스 등 3명이 로(=모방) 신부가 건네준 문답 한권을 하루 만에 다 배워서 령세와 견진을 받았다고 한다. "96차 이 베드로", 『기해·병오 박해 순교자 증언록』, 855. "죄인의 나이는 갑술생 72세요 태중교우 - 20세에 중국 유(방제)신부전에 보례 - 무술년에 노신부 때 윤발바라와 혼배하여 양지 배매실서 살더니." 『달레 중』, 159에, 이경언 바오로가 1827.05.15.에 '이정의의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 보면, "박해의 그악한 바람이 좀 자거든, 와서 내 물건을 찾아다가 아들에게 갖다 주시오. 두 아이들에게 세례(『보감』, 103호 405에서는 대세)를 다시 주게 하오." 하였다. 참조: 샤를 살몽, 『성 다블뤼 주교의 생애』, 대전가톨릭대학교, 2006, 37. 다블뤼 주교도 태어난 날에 바로 약식세례.

74) "파란눈 목자와의 대화 35: 서양선교사들의 사목서한. 모방 신부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부에게 보내는 편지", 최세구 역, 『상교우서』, 2016년 겨울, 수원교회사연구소, 2016, 33.

75) 참조: 차기진, 『연구 12집』, 101; Pichon, *Pro Corea Documenta*, Missione Seoul Korea, 1938, 16; "페레올 주교의 28번 서한", 『역사총서』 제3권, 423.

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형은 어려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초복이를 잃었으나 또다시 복덩이 같은 아들을 얻었기에, 김대건을 再福(재복)이라고 불렀을 것이다.[76]

김대건 신부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었음이 확실하나, 족보나 그 밖의 기록에는 그녀의 이름이나 세례명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그 누이의 남편이던 곽가가 기해1839년 박해 때, 장인이 되는 김제준(제린)이 숨어있는 곳으로 포졸들을 안내하여, 체포하게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김제준에게 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77] 이에 대하여 김대건 신부도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대한 보고서(1845.3-4.)'에서, '배신자가 한덕골(Hantecol)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많은 거짓말을 하여 젊은이를 오류로 꾀어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한 고발자도 국법에 따라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며 언급하고 있다.

사위인 곽가가 기해박해 당시에 25세(1815년생)의 청년이었다면, 김대건 신부보다 6살 위가 되므로, 당시의 관례로 보아, 그 누이는 김대건의 姊兄(자형)보다 나이가 더 많았거나 동년배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김대건 소년이 신학생으로 발탁되던 1836년에는, 그 누이의 나이가 22세가 되었을 것이므로, 이미 공주 부사산[78] 공소 회장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을 것이다.

김대건(지식) 신부에게는 金蘭植(김난식)(자 敬五(경오), 프란치스코, 1827-1873)이라는 동생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기해(1839)박해로 부친이 순교[79] 할 당시 13세였으므로, 한덕골에서 살던 작은 아버지(김제철)의 집에서 나이가 더 많은 4촌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김제준의 장례를

76) 참조: 『순교사화』 제4권, 22.

77) 참조: 이석원, "모방. 샤스탕. 앵베르 주교의 서한에 나타난 조선대목구의 현황", 『제6차 기해박해 18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수원교구, 2019, 41; 『순교사화』 제4권, 23.

78) 공주 부사산은 낙화암이 있는 곳(=부여)의 부소산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79) 참조: 『달레 중』, 467; 『보감』, 160호, 1909, 448.

치렀을 것이다. 이후 김난식은 2살 위의 族人(큰 할아버지 김종현의 증손자, 顯采 토마, 1825-1888)을 따라 멀리 전라도 정읍땅 먹구니(정읍군 산내면 묵리)로 옮겨가 그곳에서 자랐고, 이후 養蜂을 하다가 1873년에 47세로 선종하였다고 한다.[80]

그러므로 김제린(제준)과 고 우르술라가 낳은 자녀들을 5남매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김제준이 20세경에 낳아 곽가에게 시집간 딸(❶ 1815년생?)과 김대건 신부의 형(❷ 1818년생? 初福이), 그리고 김대건 신부(❸ 1821년생 再福이)와 동생 김난식(❺ 1827년생 三福이)이 있는데, 생존한 형제들 사이에도 한덕골에서의 열악한 조건에서 어릴 적에 사망하였을 아이가(❹ 1824년생?)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81]

김대건 소년이 세례를 받은 때를 '병신(1836)년 늦은 봄'인 것으로 추정하여, 김구정은 『순교사화』 4권에 기술하였고(양력 6월 초순, 39쪽), 후대의 연구자들은 그대로 따랐다.[82] 하지만 이 베드로와 김 프란치스코 등의 증언에 의하면, 김대건은 사실 태중교우로서 어려서부터 이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83]

또한 『순교사화』 4권에서, 이때 받은 세례가 모방 신부가 지방의 교우촌 순방에 나서서 은이 공소에 들렀을 때의 일이라고 하나,[84] 오

80) 참조: 김진소, 『신바람 사는 보람』, 163. 김구정, 『순교사화』 제4권, 22에, 三福, 프란치스코.

81) 참조: 김구정, 『순교사화』 제4권, 22.

82) 참조: 하성래, 앞의 글, 186. 김대건 신부가 "1836년 4월 골배마실 이웃에 있는 은이 공소에서 모방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신학생 후보로 선발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확실한 문헌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은이 공소 洗禮說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건 신부가 굴암에서 은이까지 걸어와 세례를 받고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모방 신부가 굴암 김제준의 집으로 찾아가 김대건 신부를 신학생으로 선발하여 데리고 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3)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 "96차 이베드로의 증언에", "면천 사람이온데, 태중교우."

84) 참조: 『보감』 83호, 1908, 245; 『보감』 161호, 1909, 451-452; 김구정, 『순교사화』 제4권, 9, 14, 62.

히려 모방 신부가 전하는 바로는, 1836년 사순절이[85] 시작될 무렵에 유방제(余恒德 여항덕) 신부가 굴암(Kouram) 마을로 가서 고해와 세례 성사를 집전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다.[86] 따라서 김대건 소년은 1836년 사순절 판공 때, 유방제 신부에게 굴암공소에서 보례와 더불어 성사들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87]

모방 신부의 실제 사목활동 기록을 보면, "부활절(1836.04.03.) 후에 모방 신부는 처음에는 서울에서, 그 다음에는 경기도와 충청도(뒤에 보면 온양도 방문)에서 포교활동을 계속하였는데, 16개 내지 17개 교우촌을 방문하였다."고 하였다. 이 활동은 1836년 12월까지 유아세례 140명, 補禮者(보례자)는 대인 110명이고 소아가 22명, 고해자는 적어도 630명, 혼배 유효화 85건, 종부성사가 8-9건으로서, 보례를 받는 어른들이 더 많았다.[88]

이에 필자가 추론하여 보건대, 김구정 선생은 달레 교회사에 나오는 모방 신부의 이 순방 내용을 나름대로 각색하여 '성웅 김대건전'에 이어, 똑같은 내용의 『순교사화』 제4권을 소설체의 형식으로, 곧 김구정 선생 본인의 표현대로, '살을 부쳐' 쓴 것이었다.

그러므로 "모방 신부가 김대건 소년에게 성사를 주었다."는 김구정의 글은, 앞서 본 자료들을 종합하여 꾸며낸, 소설식 이야기에 불과하다. 실상 모방 신부는 1836년 부활절을 서울에서 지냈고, 이어서 경

85) 1836년 부활절은 4월 3일이었고, 재의 수요일은 1836.02.17.로 설날이었다.

86) "파란눈 목자와의 대화: 서양선교사들의 사목서한. 모방 신부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부에게 보내는 편지", 최세구, 정혜정 역, 『상교우서』 56호, 2017년 가을, 수원교회사연구소, 2017, 35-36.

87) 참조: "페레올 주교의 28번 서한", 『역사총서』 제3권, 423; "최양업의 8번 서한", 『최양업 신부의 자료집』 제1집, 151.

88) 참조: 『달레 중』, 335, 각주 23(모방 신부가 파리 신학교 본부에 보낸 1836.12.09.서한); 『보감』 129호, 1909, 198; "페레올 주교의 28번(수리치골 1846.11.03.) 서한", 『역사총서』 제3권, 447; "최양업 신부의 7번(1850.10.01.) 서한", 『최양업 신부의 자료집』 제1집, 113.

기도와 충청도(온양도 방문)의 17개 교우촌을 순방하는 길에 굴암 공소(한덕골)에도 들렀고, 남쪽(충청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김대건을 제자로 삼겠다고 요청하자 김제준이 허락하였다. 이리하여 김대건 소년이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서울로 올라간 때는 7월 11일이었다. 이로써 모방 신부는 유방제 신부가 선발했던 2명을 탈락시키고, 12월 3일에 마카오로 출발할 3명을 새로 선발하였다.

따라서 김대건 신부는 오히려 유방제 신부에게 굴암 공소에서 성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며, 이때 받았을 성사들은 補禮(보례)에 이은 첫고해와 첫영성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증조와 종조부 때부터 순교하는 전통이 생겼던 이 집안의 당시 전통으로 보면, 아버지 김제준을 비롯하여 김대건도 태중교우였고, 이 멜라니아의 영향도 컸을 것이므로,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어 공소회장에게 바로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주문모 신부의 순교 이후에는 성사를 집전할 신부가 없었고, 당시 정약용의 자녀들처럼 어려서 죽는 사례가 많았던(3/9생존) 상황에서, 일단 유아세례를 공소회장에게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유방제 신부의 입국과 더불어 공소 순방 활동이 이어지자, 김대건 소년은 아마도 1836년 사순절에, 굴암공소에서 유방제 신부에게 보례를 받았을 것이다.

기해박해로 김제준 이냐시오가 서소문 밖에서 순교한 후, 그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르는 일은, 최양업 신부의 아버지 최경환 성인의 경우와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대건 신부의 季父(계부) 제철(1803-1835) 집에서, 나이가 더 많은 4촌 형제들이 김난식(13세)과 함께 그 시신을 찾아, 족보 기록대로 '양지 서면 자좌'에 장례를 지냈을 것이다.

이후 김난식은 7촌 族姪(족질) 김현채를 따라 정읍 먹구니로 떠나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돌보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 고 우르

술라는 김대건 신부의 순교 후, 그 아들 묘지에 마음을 빼앗겨 김제준의 묘를 자주 찾지 않았을 것이고, 이후 돌아볼 직계자손마저 끊어짐으로써, 후대에 김제준의 묘를 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김제준의 무덤이 족보에는 '양지 서면 자좌'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김진용 회장도 찾을 수 없었고, 용인 대리구(필자가 2007-2012 재직)에서 김진용 회장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한덕골에서 함께 살았던 김대건 신부의 4촌 형제들 가운데 金謹植(김근식)(제봉의 계자, 1825-1867.11. 공주 순교)과[89] 金旋植(김선식)(프란치스코, 1833-1868 해미 순교)이 순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0] 치명일기 63. 김 시몬이 1870년에 40여 세로 순교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족보에 잘못 기록된 김진식(1827-1867)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김대건 소년이 신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서울로 올라간 때는 1836년 7월 11일이었다. 모방 신부가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36.12.03.자 서한에,[91] "그들의 성명을 도착순으로 소개하면, 지난 2월 6일에 최토마스, 3월 14일에 최프란치스코, 7월 11일에 김안드레아가 도착하였습니다."하고 적었다. 이 편지의 수신일은 1837년 6월 7일이고, 세 소년이 마카오에 도착하는 날짜와 같으므로, 이 편지는 직접 지니고 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모방 신부는 방인 성직자 양성을 위하여 세 소년을

89) 참조: 『치명일기』 455.

90) 참조: 이원순, 『연구 12집』, 95.

91) 출신지를 표기한(oriundi) 서약서에, "경기도 남양 출신의 최 야고보와 황 안나의 아들 최(방제) 프란치스코, 충청도 홍주 다리골 출신의 최(양업) 토마스, 충청도 면천 솔뫼 출신의 김(대건) 안드레아."라 하였는데, 최방제만 잘못하여 현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최양업 번역 『순교자들의 행적』 기록에, "안드레아는 1821년 8월에 충청도에서 출생하였습니다.(natus est anno 1821)"하였다. 참조: 배티 사적지(편), 『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부록 - 기해·병오박해 순교자들의 행적, 최양업 신부 역, 천주교 청주교구, 1997, 235.

선발하였고, 이들은 유방제 신부의 추방 길에, 정하상과 조신철, 이광렬이 안내하는 가운데 1836년 12월 3일에 한양을 떠나, 12월 25일(성탄절)에 이미 책문에(봉황성) 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스탕 신부 일행을 만났다. 사스탕 신부는 소년들 일행을 28일에 상봉하였고, 3일 후인 12월 31일에 이들과 헤어져 서울로 향하였다.

이렇게 유방제 신부는 양력으로 1834년 1월 16일에 입국하였으나, 포르투갈 선교보호권 분쟁 문제로 인하여, 모방 신부(=부주교 역할)에 의해 추방되었다. 그는 1836년 12월 3일에 세 명의 신학생들과 함께 한양에서 출발하여, 조선을 떠났다.[92]

3명의 소년은 2명의 중국인 안내자를 따라 마카오로 향하여, 遼東(요동)과 韃靼(달단)(보감에 달다리아)과 중국을 건너질러, 열심과 착한 뜻을 가지니고 6개월 동안 걸어서, 다음 해 1837년 6월 7일에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 장래가 가장 촉망되던 최방제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마카오 도착한 지 5개월 20일 만인, 1837년 11월 26일/27일에, 열병(보감에는 학질)으로 갑작스레 사망하였다.[93]

4. 김대건 부제의 육로 탐색과 귀국

페레올 주교는 1844년 6월 2일에(=삼위일체 대축일) 소팔가자에서 최양업과 김대건 신학생에게 차부제품을 주었고, 이후 아마도 1844년 12월 8일(일요일, 무염시태축일)에는 부제품을 주었다.[94]

---

92) 참조: 『일성록』 헌종 5년(1839) 8월 7일. 유방제 신부는 1834년 1월 3일에 변문을 떠나 16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조선 체류기간은 만 3년에 이른다.

93) 참조: 『달레 중』, 383; 『보감』 136호, 1909, 255. 바랑탱(Barrentin) 신부의 1837.06.13. 서한 53과 79-89에 보면, 최방제의 정확한 사망시간은 1837.11.26일 자정-27일 새벽이다.

페레올 주교는 김 방지거 밀사와의 사전 약속에 따라 1845.01.01.에 국경(변문)에 도착하여, 김대건 부제와 함께 조선으로 입국하고자 하였다. 주막으로 찾아온 김 방지거는 주교의 입국은 불가능하고, 오직 김 부제의 입국만 가능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였다. 심하게 의심하며 질문하는 조선 국경의 병사들 때문에, 주교를 수행할 7명의 일꾼 가운데 3명만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결국 김대건 부제는 뱃길로 상해로 와서 주교를 입국시킬 것을 지시받고, 홀로 10년 만에 입국하게 되었다.[95] 그 입국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달레 하』, 66쪽, 김대건의 10번째 편지(서울에서 1845.03.27.)

[1844년 말에] 신자 7명이 말 2필을 끌고 주교님을 마중 왔었습니다. 그중 3명은 말을 끌고 변문까지 가게 내버려두고, [4명은] 말들을 끌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4명은 현석문 가롤로,[96] 이재의 토마스와, 하인 2 사람이었습니다.[97] --저는 동행 1명 (=아래 포도청 6번 진술에, 이가(=이의창)를 炭幕(탄막)에서 만나) 만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저희는 평양에서 기다리던 (현석문) 가롤로와 (이재의) 토마스를 만났습니다. (그후) 7일 동안 함께 길을 계속하여, 마침내 수도 서

94) 참조: 한국교회사연구소, “김대건의 9번째 서한”(1844.12.10. 이후), 『자료집』 제1집, 159, 각주 104. “페레올 주교의 15번 서한”(1844.05.18.) 추신에 차부제품(sous-diacres) 예정이라고 한다. “페레올 주교의 16번 서한”(1844.12.10.)에 이미 부제품(diacres)을 주었다고 한다.

95) “페레올 주교의 19번(1545.05.25.) 서한”, 『역사총서』 제3권, 291, 299; “페레올 주교의 28번(수리치골 1846.11.03.) 서한”, 『역사총서』 제3권, 429; 『달레 하』, 62.

96) 참조: “페레올 주교의 28번(수리치골 1846.11.3.) 서한”, 『역사총서』 제3권, 433 이하. 李在永이란 가명으로(일성록 1846.윤5월 22,23,26.) 상해 항해에도 참여하였다. 최양업 신부의 동생인 최 선정 베드로의 증언에, “76 현갸오로는 서울 중인의 사람으로 신유년에 치명한 교우의 자식이라. - 죄인을 아들로 녂하여 장가를 드리고 집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하였다.

97) 한국교회사연구소, “김대건 신부의 10번째 서한”, 『자료집』 제1집, 164. “Erant autem Carolus Sen, Thomas I et duo famuli.” 두 명의 하인들은 김대건의 14진술에서, 곧 이박돌과 이의창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울에 도착하였습니다.[98] 이를 정리하면,

ㄱ. 중국: <= 김방지거 등 3명; @변문: 고주교, 김대건; =>@의주: 현석문, 이재의, 2명의 하인.

ㄴ. 조선입국: 5명은 @의주에서 헤어져, 김대건과 이의창(하인)만 따로 30리를 가서 주막에 묵었고, 이후 말을 타고 5일을 더 가서, @평양에서 3명과 다시 합류하여 서울행.

2) 페레올 주교의 1845.05.25.자 서한[99]

3) 『1846년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00]

나는 3명의 밀사에게 적어도 김 부제는 입국시키라고 강요했고, 김 부제에게는 [조선에서] 배 한 척을 마련해서 상해로 오도록 지시했다.

4) 김대건 신부의 6 번째 진술(『일성록』 1846.05.30.)

癸卯(계묘) 1843년 11월[101] 에 다시 鴨綠江(압록강)을 몰래 건너 의주에 도착하여, 서울에 사는 이가(즉 이의창)를 炭幕(탄막, 酒幕(주막)이나, 실제 숯 굽는 막)에서 만나, 길동무 삼아 上京(상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가가 본래 집이 없었으므로, 제가 所持(소지)한 銀子(은자)로 石井洞(석정동)에 집을 사, 그곳에서 살고 만나(住接(주접)) 입고 먹고 한지가 이제 4년(1843-1846)이 되었습니다.[102].

---

98) 그러므로, 현석문, 이재의, 이의창은 3총사로서, 상해에 갈 때도 동행했다고 본다.

99) 페레올 주교 서한, "1846년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 『역사총서』 제3권, 수원교구, 291, 299.

100) 같은 책, 911.

101) 사실은 1년 후인 갑진 1844.11.23.(양력 1845.01.01.)에 부제로 입국했다.

102)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자료집』 제3집, 86. 이의창과 항상 동행한 것이다.

5) 김대건의 포도청 14진술(병오 윤 5월 3일/양 6.26.)[103]

저는 우리나라 경교인을 탐지하기 위하여 들어왔고(115의 29진술 참조), 책문 안에 (한)進吉(진길)이 있고, 왕래시의 주인은 韓(한)[104] 이라고 稱(칭)했습니다. 저는 계묘 1843년 겨울에 韓(한)가의 집에 가서, 이재용(재의)과 使喚(사환)(심부름꾼) 李博亘(이박돌)을 만나 함께 서울로 왔는데(포도청 6초 참조), 소지한 물건은 이가(의창)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창은 1845년 김부제의 입국 초부터 복사가 되어, 이후 상해로 가서 신품을 받고 돌아올 때까지 동행하였다. 서해 입국로 개척시 김대건 신부가 체포될 때에 하선하여, 이후 기록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앞으로 보게 될 자료에 의하면, 133위 '하느님의 종'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이병교 레오 순교자로 확인할 수 있다.)

5. 김대건 신부의 활동

1845.04.30.(음력 3월 24일 수요일)에, 김대건 부제는 페레올 주교의 앞선 지시에 따라,[105] 주교와 선교사 영입을 위해 현석문 등 11명의 교우들과 함께 제물포를 출발하였다.[106]

---

103) 같은 책, 99.

104) "100차 -최 베드루의 진술에서", 『기해·병오 박해 순교자 증언록』, 75. "김 안드레아 탁덕은 - 변문서 영접하러 온 김방지거를 만나니- 현(석문) 갸오로, 한(=진길?) 베드루 몇 사람이 내려가 뫼시고, 별고없이 상경하신지라." 『자료집』 제3집, 129. 현석문의 2번 진술에, "계묘 1843년 겨울에, 제가 책문의 한가의 집으로 가서 탐문하는 사이에, 김대건 또한 개시(=灣商後市?) 중에 나와서 교묘히 만나 상봉하였습니다." 참조: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자료집』 제3집, 217.

105) 참조: "페레올 주교의 28번 서한", 『역사총서』 제3권, 429; 『성 다블뤼 주교의 생애』, 239.

1) 『달레 하』, 68, 각주 19. 김대건의 16번째 서한(1845.07.23.)

모든 준비를 갖추고 저는 교우 11명과 같이 배를 탔는데, 그중 4명 만이 어부였고, - 오송에서 출범하여 상해 항구로 들어갔습니다.(6월 4일)

2) 류홍렬의 『한국천주교회사』(증보) 상권에서, 사공 임성실(성룡), 김인원, 현석문, 임치화, 최가(형) 외에, 김가, 신가를 거명하고 있다. 또한 『병인치명사적』에서는, 이의창(이병교)이 "안 주교(다블뤼) 처음 오실 제 복사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11명의 명단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1.玄錫文, 2.李在誼, 3.崔炯, 4.任致化, 5.盧元(彦)益, 6.林(성룡)聖實, 7.金仁元, 8.김가(김성서 요아킴),[107] 9.신가, 10.이의창 등, 열 명이 확인된다. 남은 한 명은 김대건 신부의 14차 진술과 기해·병오 박해 증언록 100차 최베드로 증언의 한 베드로일 가능성도 있다.[108]

현석문 이재의 최형 임치화 노원언익 임 성 실 김인원

3) 『성 다블뤼 주교의 생애』, 243쪽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이 몇몇 조선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다녀가지 않았을 리가 없지요. 그들은 늘 하는 대로, 중국어로 된 성서 꾸러미를 들고 와서, 배에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배 위에다 성서 꾸러미를 던져놓고는 도망쳤습니다. -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은 여러 번 달리 시도를 했으나, 김대건 안드레아는 완강하게 거절하고, 그들의

106) 참조: "김대건의 16번째 서한(1845.07.23.)", 『자료집』 제1집, 201. 항해 과정이 상세하다. 『성 다블뤼 주교의 생애』, 239, 248에, "안드레아 신부를 우두머리로 하는 11명의 교우들(4명만 어부), -이들 중 한 명은 항해 내내 아팠습니다." 참조: 『경향잡지』 1930년 10월, 474.

107) 참조: "김 성서 요아킴의 증언",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영인본), 625.

108) "김대건의 포도청 33 진술"(3집 117쪽)에서, 4년 동안(1843-1846)을 이의창과 동거했다고 진술하므로, 이의창도 분명히 이 11명 가운데 있었음이 입증된다.

주장과 비방에 대해 반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즈음은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109]

4) 김 프란치스코(1812년 생) 증언, 『기해·병오 박해 증언록』, 회차 81(1884.05.24.)

공부 마치신 후, 6품 부제로 있을 때 요동으로 주교 모시고 건너와, 주교 신부 영접 경영하기를 원하여, 계묘1843년 동짓달에 변문으로 오실 때,[110] 죄인이 연행길에 마침 만나 같이 조선으로 나가기를 간청하나, 영접 예비도 없고 위험한고로 죄인이 못하겠다하고 갔더니, 후에 말 들은즉, 김안드레아가 혼자 의주까지 왔다가 잡힐 뻔하고, 도로 요동으로 갔더니, 죄인이 북경 다녀오는 길에(3월) 변문서 김안드레아 편지를 받아보니, 8월에 오라 하시기에, 그때 다시 가서 김 안드레아와 만나 상약하고, 갑진 1844년 섣달에 주교영접하기를 언약하고 돌아왔다가, 때 당하매 죄인과 현 갸오로 이 도마스와 다른 교우들과 한가지로 가서 고 주교를 뵈았으나, -김 안드레아(부제)만 뫼시고, 서울까지 올라온지라.

김 방지거는 1844.01.24.(음력 1843.12.05.)에 묵덴에 도착하여, 페레

109) 이승훈의 손자 이재의(1808-1868) 순교자는, 1845년에 김대건 안드레아 부제와 함께 배를 타고 중국 上海에 가서, 동료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 현석문, 최형, (이의창) 등, 모두 12명이 3개월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상해에 머물러 있었다.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이 중국어로 된 성서 꾸러미를 들고 와서 건네주기도 하자, 김대건은 그들의 주장과 비방에 대해 반박을 하기까지 했다. 관련 문헌은 소순태의 1991과 1996번 글 참조: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96.htm. 상해에서 쓴(1845.06.04.자) 김대건 부제의 13번째와 14번째 서한 끝에서만 조선인(Coreanus) 김 안드레아라고 서명하는데, 朝鮮國(人)金安德(利亞)이라고 표현하는 성교요지 좌수본을 참조: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54-1785_이벽/성교요지_좌수_필사본.htm.

110) 김 안드레아 신학생이 처음 입국하려 했던 해는 1842년 말이다. 김 프란치스코가 오래된 기억으로 인하여, 1843년 12월 5일(양력 1844.1.24. 수)에, 묵덴(심양)으로 페레올 주교를 찾아와 보고할 때의 사실과 혼동하는 듯하다. 체포된 시초의 『해서문첩록』에서는, "甲辰1844년 11월에(23일) 책문 변경에 이르러 조선 지방을 보고자 하여, 압록강의 얼음(갑진)을 타고 몰래 스스로 나왔고, 작년 8월에 서울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참조: 『자료집』 제3집, 33.

올 주교께 보고.[111]

5.1. 상해로 항해

1) 1846년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12]

천주님께서 김대건 부제를 다시 시험해 보셨다. 김부제는 출항했다가 바다 날씨가 (너무) 나빠서 여러 번 항구로 되돌아가야 했다. 먼 바다에 이르러서 사나운 폭풍을 만나 돛대가 부러지고 키가 부서졌으며, (선원들의) 소지품과 식량 일부를 바다에 던져야 했다.

2) 김대건의 16번째 서한(상해, 1845.07.23.)[113]

처음 하루는 순풍을 따라 항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비를 동반한 큰 폭풍우가 일어나 사흘 동안 밤낮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30척이 넘는 강남(상해) 배들이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 저는 기를 흔들고 북을 치면서 그 배를 불렀습니다. [114] -약 7일이 걸려(5월 28일) 吳淞口(오송구)에 도착하였습니다. - 영국배의 상관들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 Arthor John Empson이라는 영국인이 프랑스 말을 할 줄 알아서, 저를 위해 영사에게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 페레올 주교님이 영사에게 우리의 도착을 미리 알려 놓았고, 또 우리를 보호하도록

111) “페레올 주교의 13번 서한(1844년 1월 20일)”, 『역사총서』 제3권 233, 235 추신; 『성 다블뤼 주교의 생애』, 237; 『경향잡지』, 1930년 10월, 449.

112) 『역사총서』 제3권, 913.

113) “김대건의 16번째 서한(1845.07.23.)”, 『자료집』 제1집, 201.

114) 참조: 최부, 錦南集, 『표해록』; 『치명일기』 826(『박순집 증언록』, 186). 김선달 아륵스(베드로)도 제주에서 표류하여 중국까지 떠밀려 갔다가, 조선 신학생 바울리노에게 배워 영세하고 돌아왔다. 참조: “최양업 신부가 1858년 10월 4일에 작성한 16번째 서한”.

부탁하였으므로, 영사는 이미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신자들한테로 와서 거기서 이틀을 기다렸더니, Gotteland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 배로 돌아오니 교우들이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들이 그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고, 또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3) 고틀랑 신부의 편지.[115] 1845.07.08. 강남에서 예수회 장상에게

페레올 주교는 이 용감한 부제에게 정크(une jonque)를 마련하고, 가능하면 선원으로서 교우들을 데리고, 오래전부터 육로 입국이 불가능해진 포교지에, 해로로 입국하기를 바라면서, 상해로 그를 영입하러 오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그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조상 3명의 순교자들(trois martyrs) 즉, 증조부 김 진후(운조), 종조부 김 종한(한현), 부친 김 제준(제린)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고 우르술라)도 박해자에게 자수하고 싶었지만, 박해자들이 여교우들과 아이들이 무리지어 자수하러 올 것이 두려워 그들을 체포하는 것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5.2. 서품과 귀국

1) 『달레 하』, 73

오송항에 김 안드레아의 배가 나타난 것은 그 지방 사람들에게 큰 구경거리가 되었다. [김 부제가] 영국 배들 가운데에 닻을 내리는 기지가 없었더라면 큰 위험을 당하였을 것이다. - [고틀랑] 선교사는 동료 중 한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나는 그들의 배로 서둘러

115)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자료집』 제2집, 251-253.

갔습니다. -김 부제는 고백을 끝낸 다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차례로 선원들의 통역 노릇을 하였습니다. -교우들에 둘러싸여 거룩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2) 『달레 하』, 80

페레올 주교와 그의 동행은(마카오 경리부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던 다블뤼 신부) 마카오에서 상해로 가는데 12일이 걸렸다. 그들이 도착한 며칠 후에, 상해에서 20-30리 떨어진 교우촌인 金家港(김가항) 경당에서 매우 감격적인 의식이 행하여졌다. 1845.08.17. 주일에 페레올 주교는 용감한 김 안드레아에게 조선인 최초의 사제품을 주었다. 신자들이 떼를 지어 모여왔고, 중국인 신부 1명과 서양인 신부 4명이 참석하였다. 축제는 다음 주일 24일에 보충되었으니, 안드레아 신부는 다블뤼 신부의 보좌를 받으며 萬堂(달레 2권 294에, Wam-dam) 소신학교에서 첫미사를 봉헌했다. 일주일 후에 새 신부는 다시 자기 배를 타고, 그의 주교와 선교사를 몰래 그 배에 모시고, 새로운 용기를 가득 안은 채 조선을 향하여 돛을 올렸다.

3) 페레올 주교의 22번(강경, 1845.10.29.) 서한

저희가 조선반도의 남쪽 제주도 맞은편, 즉 원래 상륙하려던 곳에서 4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낙담했던지요! -만일 한양으로 직행했더라면, 아마 틀림없이 잡혔을 것입니다. -10월 12일에 (강경)포구에서 좀 떨어진 외딴 곳(=나바위)에 닻을 내렸습니다.

4) 『기해·병오 박해 순교자 증언록』, 100차 최 베드루[116]

현갸오로, 니도마스, 최베드로와 배사람 12인을 다리시고 배에 올라, --죄인도 용인 공소에서 성사를 받았으며, -김 공숙이와 김방지거와 또 여러 교우 친히 보고 와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5) 68차 임 누시아(1884.04.21) 56세 - 583쪽

6) 102차(1887.04.02), 60세 이 마리아[117]

7) 정규량 레오 신부[118]가 1931년에 친필로 쓴 “단내 졍씨 가사”

> “김 신부님과 복사(=이의창)가 깊은 밤중에 대문 밖에 오시어,
> -김 신부님께서는 10여 명의 고해자들에게 성사를 주시고, 다시 배마실(현 남곡리 양지 성당 소재지)로 가시어 거기서 성사를 주시고, ‘은이’로 가시면 날이 샌다고 하신다.”

5.3. 서해(백령도) 입국로 개척과 순교

1) 船主 林成龍(베드로, 성실, 23세)의 진술
선 주 임 성 룡

4월17일(양력 1846.05.12.)에 (김)대건이 이가(=의창)와 함께 저의 집에 왔으며, 저의 부친(임치백 요셉)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 생원은 곧 우리 집안의 외척으로서, 그와 친한 김생원(=김대건)과 함께 유람차 황해

116) 『기해·병오 박해 순교자 증언록』(영인본) 제24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117) 최양업 신부의 동생 최의정 야고보의 부인이다.

118) 정규하 신부의 8촌 동생이며, 정규하 신부의 조카는 정원진 신부이다.

도에 가고자 하는데, --사공과 일꾼인 嚴秀(엄수), 金性西(김성서), 盧彦益(노언익), 安順命(안순명), 朴性哲(박성철), 합하여 8명이 함께 배를 탔습니다. - (소)공동의 이가(의창)와 일꾼 노언익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륙하여 서울로 돌아갔고, 일꾼 김성서, 안순명, 박성철은 저희들이 체포되는 광경을 보자 도망하였습니다.[119]

2) 『기해·병오 증언록』, 30번 김성서 요아킴의 증언

적은 배로 상해를 갔다 온 지 일 년이 지나(1846년), 주교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김 신부는 서울을 떠나 중국 배를 만나기 위해 황해도로 갔다. -사공들은 1. 임 베드루 성실(성룡/이재의 공초에서 상해 동행), 2. 엄서방(엄수), 3. 노서방(노언익), 4. 안순명, 5. 박 베드루 성철, 6. 죄인(김성서 요아킴), 7. 신부 복사는 니(의창) 베란시오[120] 등이었다.

3) 김 프란치스코(1812생) 밀사의 증언 회차 81(1884.05.24.)

병오1846년 봄에 서양으로 보낼 주교 신부 편지를 가지고, 배타고 황해도로 내려가 胡船(호선)에 전하기도 하셔, 이후에 神師(신사)네(=신부들) 영접길도 살피기를 원하여 가셨삽네다.

4) 김대건의 15번째 진술[121]

저는 교우를 만나보고자 작년(1845) 8월에,[122] 李在容(이재용), 林

119) "김대건의 20번째 서한(1846.08.26.)", 『자료집』 제1집, 361; 일성록 헌종 병오 5월 26일 조(『자료집』 제3집, 38). 지도에 대해서는 참조: 『달레 상』, 26.

120)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영인본), 625에 '니 베란쇠'라 하였으나, 이는 달레의 교회사가 이미 출판된 뒤이므로, 달레의 기록 '베랑/Véran'에서 영향을 받은 듯하다.

121) 한국교회사연구소,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자료집』 제3집, 101.

122) 1845년 음력 8월은 29일(양력 9월 30일)까지만 있으므로, 제주도 표착과 이후 강경에

成龍과 함께 恩津[123] 具順五의 집에 가서 머물렀는데, 임가(성룡)가 배를 사서 함께 배를 타고 돌아왔으므로, 湖西(충청도)의 산천을 역력히 기억하여 그렸습니다.

5.3.1. 포도청 압송과 편지 색출[124]

1) 『해서 문첩록』에, 등산진에서 잡은 죄인 김대건, 임성룡, 엄수에 대하여, 해주 판관 박현규를 참사관으로 차정하여 입회시키고, 조사를 하였다.[125]

[31쪽] 병오 5월 20일, 죄인 김대건, 나이 25세(1821-1846), 號牌를 차고 있지 않으므로 조사가 부득이하였습니다.

[33쪽] 저는 본래 중국 광동성 오문현 사람으로, 성은 于이고 이름은 大建인데, 그(오문)縣에서 자랐습니다. 부친은 죽고 모친은 살아 있으며, 본래 장가는 들지 않았고, 15, 6세에 (西)洋敎를 배웠으며, 23세 때에 湘江(광서성)에서 商船을 타고 수로 3천리를 가서 遼東에 도착하여 하륙하였습니다.

甲辰(1844)년 11월에(=23일, 양력 1845년 1월 1일에 김 부제 입국) 책문 변경에 이르러 조선 지방을 보고자 하여, 압록강의 얼음을 타고 몰래 스스로 나왔고, 작년 8월에 서울에 도착하였으며,(상해행을 숨기려는 의도) 海西(=황해도)의 산천을 유람하고자 마포로 나가 배를 잡고자 하였는데, 임가(=성룡)의 배가 행상 차로 마침 해서에 간다고 하므로 후하게

서 하선한 10월 12일의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123) 충남 논산시에 은진면이 강경 옆에 있고, 이 지역이 황산(박 베드로 증언)으로도 불린다. 김대건 신부는 제주도 표착후 강경 나바위로 입항하여 주교 일행을 상륙시키고 난 다음에 배를 처분하고 나서, 다시 새 배로 바꾸어 타고 한양으로 들어왔다.

124) 한국교회사연구소,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자료집』 제3집, 69.

125) 같은 책, 31.

뱃삯을 치르고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4월 18일(양력 5.13)에 배를 타고 해주 연평도에 도착하여, -배를 압류하는 일로 인하여, 소란을 일으킨 바가 있어 본색이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2) 『우포도청등록』 병오 5월 25일(양력 6월 18일, 69쪽)

가. 移發(=공문발송), 황해도 관찰사가 상고
이 발

옥에 갇혀있는 이들 김대건, 임성룡, 엄수 등 3놈과 추후에 체포한 임성룡의 부 임군집,[126] 일꾼 김성서의 부 김중수 등, 합 5놈 모두에게 칼과 수갑을 채우고, 아울러 김대건이 몸에 지니고 있던 물건과 책들의 숫자를 맞춘 뒤, 위임받고 온 교졸에게 내주어 압송해 올리도록 하니, -- 상고하여 시행하십시오.

나. 回移(=회신 공문) 같은 날, 포도청에서 상고하는 일
회 이

덕산 사는 金順汝, 은진의 具順五는 거주지가 지방이므로, 의정부에 아뢴 후 포졸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상고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일
김 순 여 구 순 오

金大建 年	25	邪号 마릐ㅅ듸[127]
林君執 年	43	마포 거주, 일명 致伯, 林成龍의 아버지
임 군 집		치 백 임 성 룡
임성룡 년	23	마포에 거주하는 뱃사람(船業)
金重秀 년	78	西氷庫에 거주, 成龍의 外祖(김성서 요아킴의 父親)
김 중 수		서 빙 고 성 룡 외 조 부 친

126) 임치백 요십. 참조: “페레올 주교의 28번(수리치골 1846.11.3.) 서한”, 『역사총서』 제3권, 427.

127) 邪号 즉 세례명을 안드레아(=安德)라 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마릐띠’라고 하였는데, 이는 김대건 신부 자신이 벌써 Martyr(=순교자)가 될 것을 예견하고 말한 듯하다. 우포도청등록 29책 836에, 이의창이 모신 崔東鎭(Deguette, Victor Marie, 1848-1889) 신부의 사호를 위또로라 하였다.

嚴秀 년 44 마포에 거주하는 뱃사람
엄 수

3) 김대건의 포도청 33 진술(117쪽)

景敎人이 체포되는 것은, 모두 교우 중에서 고발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내력과 居住를 서로 묻거나 듣지 아니하고,[128] 단지 [교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받아들일 따름이니, 비록 4년(그동안에 이의창이 상해도 동행하였음을 의미!)을 同居했지만, 但只 李生員이라는 것만 알고, 어떤 사람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129]
경교인 거주 동거 단지 이생원

4) 김대건의 포도청 35 진술(119쪽)

이가(이의창)는 본래 처음 만난 사람인데, 李在容(이재의)의 말을 들으니, 당색의 종류는 南人으로 그 부친(李龐億)은 進士였고, 나이는 33세(1813년생)[130] 쯤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름과 거주하는 곳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남인 이방억 진사

5) 현석문의 2 진술(『자료집』 제3집, 129쪽)

今(1846년) 4월에 대건이 李宜昌과 함께 海西(황해도)로 갔는데, 교우 金亨重이 通奇하기를,[131] '神父께서 뱃사람과 함께 海營(해주 감영)에 체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금 이의창 해서 김형중 통기 신부 해영

128) 참조: 『달레 하』, 175. 다블뤼의 기록에, "붙잡힌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은, 이들에게 무엇이든지 털어놓지 않을 수 없게 [고문]합니다."

129) 참조: 『달레 하』, 101. 감옥에서 쓴 8월 26일자 김대건 서한에, '제 하인 Ve'ran'.

130) 참조: 『치명일기』 354, 이 량 의셩; 『우포도청등록』 29책 836.

131) 이의창은 김형중을 통해 김대건의 체포 사실을 알리고, 자신은 (고약리로?) 도피했다.

6) 김대건 33 번째 진술에 따른, 관변 보고서(『자료집』 제3집, 117쪽)

김대건의 서찰과 그림을 그로 하여금 쓰고 그리도록 해보니, 그가 손수 한 것과 남의 손을 빌려 한 것을 모두 自服(자복)하였으니, 글자의 획이 같지 않은 것은, 鐵筆(철필)과 깃털 붓(翎筆(령필))으로 쓴 것이 다르다는 데로 돌렸습니다.[132]

7) 김대건 40 번째 진술(제3집 133쪽)

저의 집에 항상 머물던 사람은 李氏(이씨) 姓(성)의 3명에 불과하였는데, 한 명은 玄錫文(현석문)으로 李在永(이재영)이라 하였고, 한 명은 李在容(이재의)이었고, 한 명은 李宜昌(이의창)이었습니다. -(이의창은) 그 文筆(문필)을 사랑하여 海西(해서)(황해도)로 갈 때 함께 배를 탔습니다.

5.3.2. 중국 배로 보내려던 서찰에 관하여

1) 김대건의 37 진술(일성록 1846. 윤 5.8.)

제가 나온 것은 계묘 1843년 11월로서, 즉 갑진 1844년 12월과 작년(乙巳 1845) 12월이 周年(주년)이 되는데, 올 4월에 편지를 부쳤으므로, 그냥 '一周(일주)(년)'이라고 쓴 것입니다.[133]

---

132) 참조: 『성 다블뤼 주교의 생애』, 270. "우리는(페레올과 다블뤼) 헤어져서 각각 다른 숙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2달 후에 다시 합쳤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 신부는 우리가 와 있다는 것과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수단을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뜻밖에도 편지들 때문에 받게 되었던 의심은 김 신부에 의해서 일소되었습니다."

133) 참조: 한국교회사연구소,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자료집』 제3집, 121. 김 신부가 중국배로 붙이려던 물건 중에는 페레올 주교가 쓴 편지도 있었지만, 철필과 령(깃)필로 위기를 모면하였듯이, 1년 전에 상해로 서품을 받으러 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한 변명이다.

2) 김대건의 포도청 20 진술(자료3집 111쪽)

저는 서양 언문(洋諺)을 해득할 수 있으므로, 9 張 편지를 제 손으로 썼고, 한문(眞書)은 어릴 때 (중국에) 들어가서 깊이 익히지 못했으므로, 5장 편지는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이가(이의창)의 손을 빌려(借手) 썼는데, 편지 말은 제가 가르쳐 주었으며, 書面(편지봉투)는 제가 썼습니다.

3) 김대건의 13번째 진술(99쪽)

편지 가운데 있는 蘭亭 陸 老相은 본시 中國人입니다. 張 老先生(베르뇌 장 신부), 李 老先生(=메스트르 이 신부)은 프랑스인이고, 梅 老爺(베시 주교?)는[134] 比如國 사람인데, 이들 3명이 中原에 들어와 저와 친숙하였으므로 그림과 書札을 청나라 사람(胡人)에게 주어, 전달하도록 시킨 것이니, - 글자는 서양 글 중에서도 諺書(라틴어)입니다.

4) 김대건의 24번째 진술(111쪽)

張 老先生은 본래 프랑스인이므로, 諺書(라틴어) 편지와 한문(眞書) 편지를 각각 써서 나누어 부쳤으니, 편지가 분실될 염려가 있어 서였습니다. 그밖에 沈 老大와 任.白.杜 3명, 陸 先生과 杜 老大爺[135]

134) 『달레 중』, 295에 보면, 南履灌(권철신의 처남인 南必容의 아들이며, 정하상의 친척: 사학징의 1권 191 참조)이 1834년 말경에 쓴 편지의 표현을 보면, 大老爺는 主敎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老先生은 神父를 칭하고, (대)老爺는 주교를 지칭하는 표현일 것이다. 김대건 신부의 옥중편지(19번째)에서, 베르뇌 신부와 메스트르 신부, 리브와 신부와 르그레즈와 신부에 인사한다. 참조: "페레올 주교의 28번 서한", 406; 『보감』 211호, 1910, 344.

135) 백가점의 두 요셉 회장이다. 참조: 『달레 하』 35, 각주 25; "김대건의 1842.12.09.자 서한", "김대건의 20번째 서한(1845.07.23.)", 『자료집』 제1집, 363-각주 286에 편지 6통(조선지도 2장과 함께). 페레올 주교의 27번(1846.09.02./383쪽) 서한에, 리브아 경리부장에게와 다른 3통의 편지(지난 3월에 조정의 손아귀에 들어간)를 언급한다. 또한 "29번(1846. 11.05.) 서한", 『역사총서』 제3권, 451도 참조할 것.

는 비록 景敎(경교)를 하지만, 모두 中國人(중국인)이어서 서양 언문(洋諺)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한문(眞書)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5) 김대건의 26 진술(113쪽)

저는 중국에 있을 때 金安德[136]으로 行世(김안덕 행세)하였으므로, 年月(년월)을 쓴 아래에 과연 安德(안덕)이라고 쓴 것이니, 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6) 黃海監司 金鼎集(황해감사 김정집)이 중국 배에 전한 편지를 찾아(=推覓(추멱)) 아룀[137]

중국배(唐船(당선))가 출몰하는 곳을 염탐하여 기어이 (그 편지들을) 찾아오도록 하였습니다. -潛商(잠상)으로 위장하여 賣買(매매)하기를 요청하며, -"여러 사람들과 힘을 합쳐 찾아내서는 이제 가져와 바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편지 봉투를 보니, 겉봉 前面(전면)의 첫째 줄에는, '안의 중요한 소식이 잘 도착되기를 기원한다.'고 썼고, 둘째 줄에는 '상해 새 나루터에 전함'이라고 썼으며, 셋째 줄에는 '蘭亭 陸[138] 老相 台前 親披(난정 육 노상 태전 친피)'이라고 썼고, 넷째 줄에는 '이름은 안에 있음(名內具(명내구))'이라고 썼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안에 봉투 2 개가 있었는데, 하나의 봉투에는 지도 1장이 있었고, 다른 하나의 봉투에는 언문도 아니고 진서도 아닌 胡書(호서)(라틴어) 6장이 있었습니다.

---

136) 성교요지 좌수본에서는 金 安德利亞(김안덕리아)라 하였는데, 안드레아 사도를 중국 천주교에서는 주로 安德(肋)이라 표기하였으나, 개신교 성경에서는 安得(烈)이라 하였다.

137) 참조: 『일성록』 1846.05.29; 『자료집』 제3집, 73-75.

138) 김대건의 24진술에(『자료집』 제3집, 113), 陸(육)(르그레주아 신부?) 先生(선생)에게 쓴 편지가 있다.

5.3.3. 관련자 체포와 김대건 신부의 순교

김대건 신부는 1846년 5월 12일(양력 6월 5일)에 등산진에서 체포되었고, 5월 28일 해주 감옥에서 서울 우포도청으로 압송된 후, 7월 26일에(양력 9월 16일) 새남터(노량사장) 형장으로 끌려 나가 軍門梟首(군문효수) 될 때까지, 3개월가량 포도청에 투옥되었고, 잡힌 이후 103일 동안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139]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더불어, 복사로 활동하면서 한문 편지까지 대필했던 이의창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양지 은이 공소에서 한이형 라우렌시오 회장이 체포되어, 1846년 9월 20일에 서울에서 순교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재의도 이의창도 깊이 숨어들어,[140] 끝내 잡지 못하였으나, 이들도 결국에는 병인박해의 와중에서 순교의 光榮(광영)을 입게 되었다.

1) 李基元(이기원)의 2 진술(『자료집』 제3집, 121쪽)

李在容(이재용)의 거처를 설혹 안다고 해도 직고할 수 없으니, 情理(정리)가 굳은 까닭이며, 이름이 없는 이가(李在永(이재영)/현석문)는 어떤 사사로운 정분도 없습니다. 근래 양반으로 천주학에 이름이 있는 자는 거의 다 사망하였으니, 제 조카(이재의/이재용)와 (이)宜昌(의창) 외에는 아마도 다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대건에게 물어보면 직고할 것입니다.

---

139) 참조: 『달레 하』, 106-121.

140) 김대건은 20번째 (옥중)편지에서, 이들을 잡으려는 포졸들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천, 양지, 은이,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까지 각처로 갔다고 합니다." 하였다.

2) 이기원(이신규)의 3 진술

이제 용모, 나이, 文筆(문필)과 南人(남인) 進士(진사) 등의 말을 들었는데, 李宜昌(이의창)의 全身(전신)을 그려 낸다면, 아마도 여느 사람과 다른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3) 조정의 결론(『자료집』 제3집, 135쪽)

포졸을 내어 잡으려던 이가 두 사람은 在容(재의)과 宜昌(의창)뿐입니다. 李在永(이재영)은 곧 玄錫文(현석문)입니다. -이재영이 이재용이 아닌 것은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재용(이재의)은 또 별도로 기찰포교를 정해 며칠 안으로 기찰하여 체포하겠습니다.

4) 어전회의와 군문효수 판결(『일성록』 1846.07.25/양력 9.15.)

右議政(우의정) 朴晦壽(박회수)가 아뢰기를, '그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본국을 배반하고 외국 오랑캐를 따른 지 10년 만에 귀국하였으니, 이는 나라를 배반한 역적입니다.

命(명)하기를, 邪學罪人(사학죄인) 金大建 梟首警衆(효수경중).

『일성록』 1846.7.26. 어영청에서, 김대건을 梟首警衆(효수경중) 하였다고 아룀.[141]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후 교우들이 시체를 찾아 미리내에 안장하였는데, 이 때 장사 지낸 경위는 이러하다. 그해 10월 깜깜한 밤에 박 갸냐의 집으로 韓경선과 羅昌文 두 사람이 와서 김대건 신부의 시

141) 참조: 『헌종실록』 1846년 7.15. "약원의 입진을 행하고, 불랑국의 글과 김대건 문제를 의논하다." 참조: 江南(강남) 代牧(대목) 姚(요) 准(준), 高麗致命事略(고려치명사략), 1900 上海(상해) 慈母堂(자모당) 活版(활판)(1929년 3판도 있는데, 표지에 "1845.8.17.에 서품을 받은 김가항 성당 순례기념"이라고 프랑스어로 기록되어 있다.), 61-79.

체를 찾으러 나갔다. 그들은 다른 교우들과 함께 새남터로 갔는데, 김대건 신부의 시체는 현석문의 시체와 한 구덩이에 들어 있었다. 그런데 김 신부의 손에는 어릴 때 강아지에게 물린 보람(흉터)이 있어 그 험처를 보고 의심 없이 찾아내어, 모래를 헤치고 시체를 찾아 홑이불에 감은 후 3마장을 지나 왜서[瓦署] 건너편 문배부리에 묻었다가 이튿날 밤 교우들이 다시 파서 왜고개로 옮겨 염습하여 미리내에 장사 지냈다. 이 장사에 참여한 교우들로는 증언자 류 발바라의 남편 李요한, 申致寬, 朴 바오로(朴順集[베드로]의 부친), 한경선, 나창문, 徐 야고보, 李敏植(빈첸시오) 등 7명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142]

결론

김대건 신부의 가문은 김수로왕을 시조로 하는 京派(51대)에 속하며, 이어서 牙山공파(60대 金希賢)에 속하는 집안이었다. 김진후(66대 운조)의 증손자인 芝植(즉 김대건)은 69세孫이 된다. 김대건 안드레아, 初名(兒名)은 再福, 譜名은 芝植, 충청도(=公忠道) 면천 솔뫼 출신이며, 아버지는 金濟俊(보명 金濟麟)이며, 어머니는 고(長興) 우르술라였다.

하성래 교수가 밝힌 바, 김대건 신부 집안은 한국 천주교회 초창기 李存昌의 전교로 김대건의 큰 할아버지 김종현과 형제들이 1785년 을사박해로 순교한 김범우에게서 교리를 배운 것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그 형제들은 21세의 김종현과 19세의 김택현이었으리라 판단되며, 이들은 1785년 명례방 집회에도 참석하였을 것이다. 집안의 가장인 김진후 비오는 내포의 사도였던 이존창을 통하

142) 하성래, 앞의 글, 193.

여 천주교를 알았으나, 시초에는 천주 신앙을 외면하고 살았다. 맏아들 김종현을 시작으로 아들들이 모두 신앙을 수용하고 열심히 봉행하자, 그 역시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비오라는 세례명으로 영세 입교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50세가 넘었다. 그는 신앙을 간직한 이후, 신해 1791년 박해부터 시작된 여러 차례의 박해로, 많은 고초를 겪은 끝에 1814. 10. 20.(음력)에 76세로 옥사하여, 이 가문에서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김대건의 조부인 김택현은 1827년 정해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 한덕골 산중으로 피신하였는데, 그동안 김구정 선생의 『성웅 김대건전』을 근거로, "솔뫼에서 용인으로 피신하여 골배마실(寒德洞, 한덕동)에 정착했는데, 그때 김대건의 나이가 7세였다고 한다."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골배마실과 한덕동을 마치 한 마을인 것처럼 기술하여왔다. 현장 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건 신부 가족의 솔뫼로부터의 최초 피난지가 용인(양지)의 골배마실이 아니라, 용인의 한덕동이었다는 김진용씨의 연구가 있었고, 이후 하성래 교수의 "성 김대건 신부와 굴암 및 은이"(『교회사 연구』, 제23집, 2004) 연구가 나왔다.

하성래는 김대건의 조부 김택현이 고향 솔뫼를 떠났을 년도에 대해, 1791년 신해박해 때나, 김한현이 고향을 떠난 1798년, 아버지 김진후가 다시 체포되는 1805년, 김진후가 옥사한 1814년, 동생 한현이 순교하는 1816년, 그리고 1827년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며, 늦어도 1815년을 전후하여 고향 솔뫼를 떠났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살펴본바, (i) 김종현의 집안을 위시하여, 4째 희현과 4촌 관현의 묘를 1830년대 이후까지 선산에 쓴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김댁현의 용인 한덕골로의 이주년도는 1821년에 선산에 묘를 쓴 김택현의 맏아들 김제봉의 사망 이후로 보아야 마땅하다. 살아있

는 장자 김제봉(1790-1821)을 남겨두고, 다른 두 동생 가족들과만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주년도는 1821년에 선산에 묘를 쓴 백부 김제봉에 이어, (ii) 김대건이 서약서에서 모방 신부에게 솔뫼를 출신지로 밝히는 계기가 되는 탄생년도, 즉 1821년 이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대건의 탄생지에 대하여, 하성래 교수는 "성 김대건 신부와 굴암 및 은이", 179에서, "『일성록』에 '태생'이라고 기록된 것은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을 의미하지 결코 사는 곳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고 하며, 김대건 신부는 1821년 용인 땅 굴암에서 태어나, 신학생으로 선발되던 1836년까지 거기서 성장하였다.(184쪽)"고 하였다. 마카오에서 최방제의 출신지가 바뀐 사실을 그 사례로 제시하였는데, 서울에서 출신지를 표기한(oriundi) 서약서에, "경기도 남양 출신의 최 야고보와 황 안나의 아들 최(방제) 프란치스코, 충청도 홍주 다리골 출신의 최(양업) 토마스, 충청도 면천 솔뫼 출신의 김(대건) 안드레아."라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차 필자의 소견으로는 최방제만 잘못하여 탄생지가 아닌 현주소(남양)를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필자의 견해는 역사학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 김대건이 잡힌 다음 첫 진술(해서문첩록)에서, 거짓으로 "본래 중국 광동성 오문현 사람으로, 성은 于(우)이고 이름은 大建(대건)인데, 그(=오문)縣(현)에서 자랐습니다."라 하였으나, 마지막 포도청 진술에서만 '용인지태생(龍仁地胎生)'이라 진술하였다. 그러나 김대건의 말을 직접 듣고 기록한 (i) 선교사들과 최양업 신부의 기록뿐만 아니라, (ii) 증언자들이 모두 충청도를 탄생지로 지목하고 있으므로, 원칙에 따라 솔뫼 출신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iii) '용인지태생'이란 진술은 둘러대는 기지였을 가능성이 크다. 『성 다블뤼 주교의 생애』, 270에, "그러는 동안 김 신부는 우리가 와 있다는 것과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수단을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였다. 주교와 신부가 숨어 있는 충청도 보다는 용인으로 둘러대는 기지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서품을 받으러 상해까지 갔다 온 사실을 극비에 붙여, 정부에서도 끝까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

김대건 소년이 조부모를 따라 솔뫼를 떠나온 이후, 신학생으로 발탁되어 마카오로 유학 갈 때까지 산 곳은 양지현의 골배마실이 아니라 용인현의 한덕골이었고, 김제준 이냐시오도 기해박해로 잡혀서 순교할 때까지 한덕골에서 살며, 굴암 공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박해를 피해 정착한 이곳 한덕골에는, 김대건 신부의 조부 김택현 일가족 이외에도 최양업 신부의 仲伯父(=崔榮謙) 일가족도 피신하여 살았다. 그러므로 최양업 신부도 귀국한 이후, 한덕골로 중백부 댁을 방문하여 이들과 눈물겨운 상봉을 하였다.

이에 종합하여 정리하여 보면, 성 김제준의 집안은 1827년경 솔뫼를 떠나 청파를 거쳐 한덕골로 찾아들어, 부모(김택현+이 멜라니아)와 동생 김제철 가족과 함께 가난하게 살면서도, 김제준이 공소(굴암)회장 일을 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므로 김제준의 집안이 양지 골배마실로 이사한 사실을 자료에서 전혀 찾을 수 없어, 김제준은 순교할 때까지 줄곧 한덕골에서 살았다. 그러다 기해 1839박해 때 7월에, 사위 곽가를 앞세운 김여상에게 김제준이 한덕골에서 잡히어 순교하게 되었으므로, 김대건의 모친 고 우르술라는 140여명이 살던 한덕골-굴암-장촌-검은쟁이 지역에서 남부끄러워 더는 살지 못하게 되자, 한덕골을 떠나 여러 곳을 떠돌게 되었다. 고 우르술라는 김 부제의 입국 때까지도 떠돌다가, 마침내 (양지출신 복사 이의창의 배려로?) 은이 인근의 골배마실(=상뜸이)에 정착하게 되었다. 김대건 신부가 신품을 받고 귀국해서야 상뜸이로 어머니를 찾아뵙고, 용인지역과 태화산 자락(은다라니, 터골 등)의 신자들에게 성사를 준 것으로 증언록은

전하고 있다.

김대건 소년은 1836년 사순절 판공 때, 유방제 신부에게 굴암공소에서 보례와 더불어 성사들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때 받았을 성사들은 補禮(보례)에 이은 첫고해와 첫영성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증조와 종조부 때부터 순교하는 전통이 생겼던 이 집안의 당시 전통으로 보면, 아버지 김제준을 비롯하여 김대건도 태중교우였고, 이 멜라니아의 영향도 컸을 것이므로,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어 공소회장에게 바로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김제준이 모방 신부에게 받았다는 영세라는 표현 역시, 이 당시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補禮(보례)로 보아야 마땅하다. 또 이 베드로와 김 프란치스코 등의 증언에 의하면, 김대건은 사실 태중교우로서 어려서부터 이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으므로, 그가 받았다는 세례 역시 보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김진소 신부는 1985년에, 성 김대건 가문의 순교자를 10명으로 정리하였었다. 이에 더하여, 『치명일기』 63, 김시몬을 살펴보아야 하고, 김희현의 손자 경식의 배필인 창녕 조씨도 전주에서 순교한 것으로 성인공파보에 기록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김대건 신부의 6 번째 진술(『일성록』 1846.5.30.)에, "癸卯(계묘)1843년 11월에 다시 압록강을 몰래 건너 의주에 도착하여, 서울에 사는 이가(=즉 이의창)를 탄막에서 만나, 길동무 삼아 상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가가 본래 집이 없었으므로, 제가 소지한 은자로 石井洞(석정동)에 집을 사, 그곳에서 살고 만나(住接(주접)) 입고 먹고 한지가 이제 4년(=1843-1846)이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의창은 1845년 1월 김부제의 입국 초부터 복사가 되었고, 현석문, 이재의, 이의창은 3총사로서, 상해로 가서 신품을 받고 돌아올 때까지 동행하였다. 서해 입국로 개척시 김대건

신부가 체포될 때에 하선하여, 이후 기록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나, 앞으로 보게 될 자료에 의하면, 133위 '하느님의 종' 가운데 있는, 이병교 레오 순교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대건 신부는 1846년 5월 12일(양력 6월5일)에 등산진에서 체포되었고, 5월 28일 해주 감옥에서 서울 우포도청으로 압송된 후, 7월26일에(양력 9월16일) 새남터(=노량사장) 형장으로 끌려 나가 軍門梟首(군문효수) 될 때까지, 3개월가량 포도청에 투옥되었고, 잡힌 이후 103일 동안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의 문초기록에, "金大建 年 25 邪号 마릐ㅅ듸"라 하였는데, 김대건 신부의 邪号 즉 세례명을 안드레아(=安德)라 하지 않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마릐띠'라고 하였는데, 이는 김대건 신부 자신이 벌써 Martyr(=순교자)가 될 것을 예견하고 말한 표현이었다.

국문초록

이 논문은 김대건 신부와 관련된 교회 기록과 정부 기록 등을 종합하여 김대건 신부와 그의 부친 김제준 이냐시오의 삶을 재조명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제준 이냐시오는 솔뫼를 떠나 청파를 거쳐 용인 골배마실로 이주하여 교우촌 회장을 지냈고, 김대건 신부가 성장하고 신학생으로 선발된 곳은 은이(골배마실)라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기록들이 있지만, 특히 시복조사 기록인 이베드로(1885년 10월 12일 96차)와 임 루치아(1884년 4월 21일 68차)의 증언을 통해 볼 때, 김제준이 용인 한덕골로 이주해 와 순교할 때까지 살았고, 이곳에서 김대건이 신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김제준이 순교한 후(1839년 7월) 모친 고 우르술라가 골배마실(상뜸이)로 이주하여 정착한 것으로 보았다.

주제어: 김대건 안드레아, 김제준 이냐시오, 용인 한덕골, 은이 골배마실, 교우촌.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shed a new light on the lives of Fr. Andreas Kim Tae-gon and his father Ignatius Kim Che-jun, by putting together church and government records related to Fr. Kim Tae-gon.

According to what has been known so far, Ingatius Kim Che-jun left Solmoe, moved to Cheongpa, and settled in Golbaemasil, Yongin, where he served as the chairman of a catholic village. It has also been known that Euni(Golbaemasil) is where Fr. Kim Tae-gon grew up and was selected as a seminary student.

Despite the variety of documentations, this paper particulary focuses on the testimony made by Peter Lee(the 96th, October 12, 1885) and Lucia Lim(the 68th, April 21, 1884) for beatification investigations, to show that Kim Che-jun moved to Handeok-gol, Yongin, and lived there until his martyrdom. It also shows that Handeok-gol is where Fr. Kim Tae-gon was selected as a seminary student, and his mother Ursula Ko moved to and settled in Golbaemasil(Sangtteumi) after the martyrdom of Kim Che-jun(July 1839).

Key word: Andreas Kim Tae-gon, Ignatius Kim Che-jun, Yongin Handeok-gol, Euni Golbaemasil, catholic village.